



# 정답 및 해설



# I 두근두근, 한자를 만나요

## 1 한자의 기초

###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탐색문제 9쪽

- 01 음: 청, 뜻: 맑다, 부수: 水(氵), 총획: 11획
- 02 음: 호, 뜻: 좋다, 부수: 女, 총획: 6획
- 03 공통점: 자음 색인, 부수색인, 총획색인의 기본적인 방법이 같다.
- 04 차이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 사전에서는 한자의 뜻만으로는 한자를 찾을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뜻으로도 한자를 찾을 수 있다 등

- 01 淸(맑을 청): 淸(청)의 본자(本字).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水))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깨끗이 맑은 푸른 색깔의 뜻을 가진 ‘靑’이 합하여 이루어졌으며, ‘맑은 물’, ‘맑다’, ‘깨끗이 하다’, ‘상쾌하다’ 따위의 여러 가지 뜻으로 쓴다.
- 02 好(좋을 호): 女[녀 → 사람, 나중엔 여자(女子)를 나타냄.]와 子(자 → 아이)의 합자(合字)  
 어머니와 아들 혹은 여자와 남자의 두터운 애정이라는 데서 ‘좋아하다’를 뜻한다.
- 03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으로는 ‘부수색인(部首索引) 이용법’, ‘자음 색인(字音索引) 이용법’, ‘총획색인(總劃索引) 이용법’이 있다.

###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문제 10~11쪽

- |        |        |        |        |        |
|--------|--------|--------|--------|--------|
| 01 ①   | 01-1 ⑤ | 01-2 ① | 02 ①   | 02-1 ④ |
| 03 ①   | 03-1 ④ | 04 ①   | 04-1 ③ | 05 ④   |
| 05-1 ③ | 06 ④   | 06-1 ② | 07 ④   | 08 ②   |

★ 되돌아보기 Page 01~08 → 6~9쪽(교과서 10~17쪽)

- 01 炎(염), 羊(양), 靑(청), 本(본)
- 01-1 日(일)
- 01-2 情: 정, 淸, 淸, 淸, 聽: 청

02 刀-칼

02-1 小-작다, 本-근본, 川-내, 玉-구슬

03 淸(맑을 청), 淸(청할 청), 靑(푸를 청), 淸(겉 청)

03-1 淸 맑을 청-(水 뜻)+(靑 음), 淸 청할 청-(言 뜻)+(靑 음), 情 뜻 정-(心 뜻)+(靑 음), 淸 겉 청-(日 뜻)+(靑 음)

04 ‘字’의 부수는 ‘宀’이다.

04-1 判-刀, 休-人, 淸-日, 園-口

05, 05-1 炎(火+火-불꽃), 休(人+木-쉬다), 好(女+子-좋다), 安(宀+女-편안하다)

 이미 있는 한자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들었다.

06 上: 지사, 馬, 人, 女, 羊: 상형

06-1 木: 상형, 本, 上, 二, 末: 지사

07 가운데를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 ㉠ 中, 事

08 ‘判’의 총획은 7획이다.

###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1쪽

- 01 모두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
- 01-1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을 이용하여 만든 지사자이다.
- 02 ㉠ 자전, ㉡ 부수
- 03 부수색인, 자음 색인, 총획색인

★ 되돌아보기 Page 01~03 → 6~9쪽(교과서 10~17쪽)

- 01 각각 ‘火-불’, ‘手-손’, ‘木-나무’, ‘馬-말’, ‘鳥-새’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01-1 本(나무의 뿌리를 표시-근본), 中(선으로 가운데를 표시-가운데), 二(두 개의 선-둘), 末(나무의 맨 위-끝), 下(기준선 아래 점-아래)
- 02 부수는 한자의 가장 기본적인 글자로, 자전은 부수자를 기준으로 배열된다.
- 03 부수색인 - 부수 6획, ‘耳’부, 8획에서 찾는다. 자음 색인 - ‘문’으로 찾는다. 총획색인 - 총획 14획에서 찾는다.

## 2 그려서 만든 한자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15쪽

- 01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 02 몇 개의 기본 글자를 조합하여 글자를 구성하고 있다.
- 03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表意文字)로서 글자 자체가 하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表音文字)로서 글자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이 단지 음만을 나타낸다.

### 생활속의 어휘

- ① 自願(자원)      ② 印朱(인주)      ③ 木馬(목마)
- ④ 自鳴鐘(자명종)      ⑤ 火山巖(화산암)

- 01 갑골 문자는 고대 중국에서 거북의 등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긴 상형 문자이다.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주로 점복(占卜)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였다.
- 02 한글은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이다.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字母)였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24 자모만 쓴다.
- 03 표의 문자는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표음 문자는 몇 개의 한정된 알파벳이나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 만들어 내는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가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리형 문제**

16~18쪽

- |        |        |        |        |        |
|--------|--------|--------|--------|--------|
| 01 ③   | 01-1 ⑤ | 01-2 ④ | 02 ④   | 02-1 ④ |
| 02-2 ① | 02-3 ① | 03 ③   | 03-1 ⑤ | 03-2 ⑤ |
| 04 ①   | 05 ⑤   | 05-1 ④ | 06 ④   | 07 ③   |
| 07-1 ③ | 08 ①   | 08-1 ④ | 09 ③   | 10 ①   |
| 11 ③   | 11-1 ① | 12 ⑤   | 12-1 ⑤ | 13 ④   |
| 14 ②   | 14-1 ③ | 15 ⑤   | 16 ⑤   | 17 ②   |

★ 되돌아보기 Page 01~17 → 12~13쪽(교과서 18~21쪽)

01 自(자), 月(월), 音(음), 花(화)

01-1 植(식)

01-2 松(송), 形(형), 招(초), 手(수)

02 松: 소나무

02-1 鳴: 울다, 高: 높다, 造: 만들다, 招: 부르다

02-2 後: 뒤, 前: 앞

02-3 栽-심을 재, 植-심을 식

03 모두 '木'이 부수인 한자이다.

03-1 모두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이다.

03-2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점, 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지사자이다.

04 下: 지사자, 足, 手, 月, 水: 상형자

05 淸: 형성자, 記 기록할 기: 言(뜻)+己(음)의 형성자

05-1 義(옳을 의): '羊+我'의 회의자

06 上: 기준선 위에 점을 찍어 위의 뜻을 나타냄.

07-1 記(기록할 기): 言(말씀 언-뜻)+기(몸 기-음)

08 枝(지) 가지, 願(원) 원하다, 淨(정) 깨끗하다, 招(초) 부르다

08-1 動(동) 움직이다

09 自願(자원): 스스로 원함, 自招(자초): 스스로 초래함, 自淨(자정): 스스로 깨끗해짐, 自鳴鐘(자명종): 스스로 우는 종

10 然: '타다'의 뜻에서 '그러하다'는 의미로 바뀜. ㉠ 當然(당연), 果然(과연)

11 植栽-식재, 印朱-인주, 自淨-자정, 當然-당연

11-1 自招: 스스로 초래함.

12 月, 水, 手, 魚: 상형, 上: 지사

- 12-1 木, 山: 상형
- 13 上: 위, 下: 아래
- 14 月(월), 魚(어), 上(상), 下(하)
- 14-1 魚(어)
- 15 木-나무
- 16 매일 발간되므로 '日'간 잡지이다.
- 17 水上-수상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9쪽

- 01 自 01-1 然
- 02 (1) 물, (2) 松, (3) 소리
- 03 山水, 本末, 足下, 吉凶, 果然, 山下, 月下 등
- 04 (1) 上, 本, 二  
(2)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을 이용해서 만들.
- 05 (1) 사물의 모양을 본뜬.  
(2)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을 이용해서 만들.  
(3) (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낸 데 반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문자화한 것이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12~13쪽(교과서 18~21쪽)

- 01, 01-1 自: 코를 본뜬. 然: 고기를 불에 태우는 모습에서 '타다'라는 뜻이 생겼다.
- 02 物(물건 물), 松(소나무 송), 音(소리 음)
- 03 한자는 조어력이 뛰어나 의미가 통하도록 얼마든지 조합이 가능하다.
- 04 지사자의 원리를 응용하였다.
- 05 (개)는 상형자, (나)는 지사자이다.

3 나의 가족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23쪽

- 01 4촌
- 02 큰아버지: 伯父, 작은아버지: 叔父, 엄마의 남동생: 外叔父
- 생활속의 어휘
- ① 子孫(자손) ② 姓名(성명) ③ 賢母良妻(현모양처)
- ④ 叔母(숙모) ⑤ 結成(결성)

- 01 일반적으로 촌수를 계산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 형제 사이는 2촌으로 계산한다.
- 02 어머니쪽 친족의 호칭에는 앞에 '外'자가 붙는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문제**

24~26쪽

- |      |        |        |        |        |
|------|--------|--------|--------|--------|
| 01 ④ | 01-1 ① | 02 ③   | 02-1 ⑤ | 03 ④   |
| 04 ③ | 05 ⑤   | 05-1 ② | 06 ①   | 07 ①   |
| 08 ④ | 09 ⑤   | 10 ③   | 11 ①   | 12 ⑤   |
| 13 ① | 14 ④   | 15 ⑤   | 16 ①   | 17 ④   |
| 18 ④ | 19 ①   | 19-1 ② | 20 ③   | 20-1 ④ |

★ 되돌아보기 Page 01~20-1 → 20~23쪽(교과서 24~29쪽)

- 01 '姊'는 '손윗누이 자'이다.
- 01-1 父(아버지 부), 婦(아내 부)
- 02 和(화목할 화)
- 02-1 生(살 생), 活(살 활)
- 04 章, 婦, 婚, 族: 11획, 須: 12획
- 05-1 結婚: 술목 관계
- 07 母(어머니 모)
- 08 <가로> 童子, <세로> 子孫
- 10 '多情'은 술보 관계이다.
- 11 본문은 家族(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 12 子孫(자손)  
 14 祖父母(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15 母親(모친): 어머니  
 16 ‘家和’는 주술 관계이다.  
 17 成(이를 성), 蟲(벌레 충): 成蟲(성충)  
 19, 20-1 伯父(백부): 큰아버지, 叔父(숙부): 작은아버지, 姨母(이모): 어머니의 여자 형제, 姑母(고모): 아버지의 여자 형제, 祖父(조부): 할아버지

시험에 잘 나오는 **사술명문제**

27쪽

- 01 女 01-1 母 01-2 子  
 02 ㉠ 현모양처, ㉡ 다정다감  
 03 父母, 祖母, 伯父, 叔父, 從兄弟(또는 四寸兄弟)  
 04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예 父母, 子女, 男女, 兄弟, 家族, 姊妹 등  
 05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수식어(꾸미는 말)가 앞에 놓이고 피수식어(꾸밈을 받는 말)가 뒤에 놓인다.  
 예 萬事, 家業, 美人, 高山, 明月, 廣告 등  
 06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짐. / 예부터 가정의 화목은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사회생활의 근본으로 중시되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 되돌아보기 Page 01~06 → 20~23쪽(교과서 24~29쪽)

- 01 ‘女(여자 녀)’는 여자(女子)가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여자’를 뜻한다.  
 01-1 ‘母(어머니 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젖을 먹이는 여인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어머니’를 뜻한다.  
 01-2 ‘子(아들 자)’는 포대기에 싸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아들’, ‘아이’를 뜻한다.  
 03 父母(부모), 祖母(조모), 伯父(백부), 叔父(숙부), 從兄弟(종형제)  
 從兄弟(종형제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에게서 난 자식으로, 사촌 관계인 형과 아우를 말한다.

- 04 병렬 관계의 단어에는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가 합쳐진 경우도 있고, 서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가 합쳐진 경우도 있다.  
 05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성격에 따라 명사류를 수식하는 것과 동사류를 수식하는 것이 있다.  
 06 『대학(大學)』에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8조목으로 삼아 집안의 다스림을 강조하였다.



4 나의 학교생활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31쪽

- 01 8  
 02 낮 12시: 正午, 밤 12시: 子正  
 생활속의 어휘  
 ① 完成(완성) ② 守備(수비) ③ 再生(재생)  
 ④ 宇宙(우주) ⑤ 就業(취업)

- 01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조선 선조 25년(1592)에 일본이 침입한 전쟁으로, 선조 31년(1598)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를 말한다.  
 02 정오(正午)는 낮 열두 시, 곧 태양이 표준 자오선을 지나 는 순간을 말하고, 자정(子正)은 자시(子時)의 한가운데, 곧 밤 열두 시를 말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문제** 32~34쪽

- |        |        |      |        |      |
|--------|--------|------|--------|------|
| 01 ㉓   | 01-1 ㉓ | 02 ㉔ | 02-1 ㉓ | 03 ㉑ |
| 04 ㉓   | 05 ㉒   | 06 ㉓ | 07 ㉓   | 08 ㉑ |
| 09 ㉓   | 10 ㉓   | 11 ㉑ | 12 ㉓   | 13 ㉓ |
| 13-1 ㉒ | 14 ㉓   | 15 ㉒ | 16 ㉑   | 17 ㉓ |
| 18 ㉓   | 19 ㉒   | 20 ㉔ |        |      |

★ 되돌아보기 Page 01~20 → 28~31쪽(교과서 30~35쪽)

- 01 午(낮 오)
- 01-1 間(간), 書(서), 字(우), 永(영)
- 02 出(날 출), 受(받을 수), 完(완전할 완), 支(버틸 지)
- 02-1 頂(정수리 정)
- 03 ‘充(충)’의 부수는 ‘儿’이다. 나머지는 모두 ‘宀’이다.
- 05 ‘登’의 획수는 12획이다.
- 07 正午(정오): 낮 12시
- 08 讀書(독서): 책을 읽다.
- 09 ‘登校’와 ‘歸家’는 모두 ‘술보 관계’이다.
- 10 ‘受業’과 ‘讀書’는 모두 ‘술목 관계’이다.
- 12 登校: 학교에 가다.
- 13 科學(과학)
- 13-1 體育(체육), 社會(사회), 音樂(음악), 美術(미술)
- 14 守備(수비), 課業(과업), 家業(가업), 人物(인물)
- 15 登場(등장): 무대에 오르다.
- 16 登載(등재): 장부나 대장에 올려서 실다. 登頂(등정): 정상에 오르다.
- 19 卯(묘): 넷째 지지. 토끼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35쪽

- 01 生 01-1 業
- 02 ㉑ 還甲(환갑), ㉒ 回甲(회갑) / 자신이 태어난 해의 육십갑자가 돌아왔다는 뜻이며, 만 60세를 의미한다.
- 03 ㉑ 子正(자정)-밤 12시, ㉒ 正午(정오)-낮 12시
- 04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된다. ㉑ 日出, 山高, 水長, 月明 등 / 술목 관계: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소유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풀이하고 서술어는 나중에 풀이한다. ㉑ 讀書, 受業, 有口, 無言 등
- 05 天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 地支: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 06 159(2)년 / 조선 선조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倭)과의 싸움(亂)

★ 되돌아보기 Page 01~06 → 28~31쪽(교과서 30~35쪽)

- 01 ‘生(날 생)’은 흙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본뜬 글자로, ‘나다’, ‘살다’를 뜻한다.
- 01-1 ‘業(일 업)’은 나무로 만든 쓸모 있는 도구라는 데서 ‘일’이라는 뜻이 생겼다.
- 02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합쳐서 60갑자(甲子)가 되는데 환갑은 태어난 간지(干支)의 해가 다시 돌아왔음을 뜻하며 만 60세를 이른다.
- 04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므로 유의한다.
- 06 ‘壬’은 서기 연도 끝자리가 2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조선 선조 25년(1592)에 일본이 침입한 전쟁으로, 선조 31년(1598)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였다.







## II 알쏭달쏭, 성어가 궁금해요

### 5 숫자가 쓰인 성어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43쪽

- 01 동아시아에서 '사(四)'는 '죽을 사(死)'와 발음이 유사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숫자이다.
- 02 중국에서 '팔(八)'은 '돈을 벌다', '발전하다' 등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 일부가 '팔(八)'의 발음과 비슷하여 '팔(八)'을 매우 길한 숫자로 여긴다.

**생활속의 어휘**

- ① 苦杯(고배)    ② 菜食(채식)    ③ 化石(화석)
- ④ 麥飯石(맥반석)    ⑤ 針葉樹(침엽수)

- 01 중국어에서 '四'와 '死'의 발음은 모두 [si]로서 같고, 일본어도 '四'와 '死'의 발음이 모두 [시]로서 같다.
- 02 중국어에서 '돈을 벌다'는 '파짜이'로, '발전하다'는 '파잔'으로 발음되는데, '八'은 중국어로 '파'와 비슷하게 발음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문제** 44~46쪽

- |      |        |        |      |        |
|------|--------|--------|------|--------|
| 01 ⑤ | 01-1 ② | 01-2 ③ | 02 ③ | 02-1 ⑤ |
| 03 ④ | 04 ③   | 05 ⑤   | 06 ⑤ | 06-1 ③ |
| 07 ④ | 08 ⑤   | 09 ④   | 10 ⑤ | 11 ①   |
| 12 ② | 13 ②   | 14 ⑤   | 15 ④ | 16 ⑤   |
| 17 ② | 18 ②   | 18-1 ① | 19 ① | 19-1 ⑤ |
| 20 ③ |        |        |      |        |

★ 되돌아보기 Page 01~20 → 40~43쪽(교과서 40~45쪽)

- 01 牛(소 우)-友(벗 우)
- 01-1 九(아홉 구)
- 01-2 盛(성할 성)-性(성품 성)
- 02 苦(쓸 고), 菜(나물 채), 草(풀 초), 茂(무성할 무)의 부수는 모두 '艸(초)'이다.
- 02-1 '麥(보리 맥)'은 제부수의 한자이다.

- 03 石(돌 석), 針(바늘 침), 皮(가죽 피), 樹(나무 수)
- 04 的(과녁 적), 化(될 화), 杯(잔 배), 興(일어날 흥)
- 05 '菜(나물 채)'의 부수는 '艸(초)'이다.
- 06 '化石'은 '지질 시대에 살던 동식물의 유해나 활동 흔적이 퇴적물 중에 매몰된 채로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 06-1 '石'은 '돌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07 '毛皮(모피)'는 '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 짐승의 가죽'을 말한다.
- 08 茂(무성할 무), 盛(성할 성)
- 09 針(바늘 침), 葉(잎 엽), 樹(나무 수)
- 10 中心角(중심각), 中立性(중립성), 中興(중흥)
- 11 '百發百中'에서 '中'은 '맞히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 '中'은 보통 '가운데'의 뜻으로 사용된다.
- 12 성어에 쓰이는 숫자 중 '一'은 아주 적은 것을 뜻하기도 한다.
- 13 '一石二鳥'에서 '石'과 '鳥'의 품사는 '명사'이다.  
☞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 14 '七顛八起'의 겉뜻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남'이다.
- 15 '千辛萬苦'의 속뜻은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몹시 고생함'이다.  
☞ '辛'과 '苦'는 '고생'이나 '힘든 일'의 의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 16 '聞一知十'의 겉뜻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앎'이다.
- 17 '아홉'의 뜻을 가진 한자는 '九'이다.
- 18 (내)에 사용된 숫자는 '九(=9)'와 '一(=1)'이고, (타)에 사용된 숫자는 '一(=1)'과 '二(=2)'이다.
- 18-1 (개)에는 '百(=100)'이 두 번 사용되었으므로 (개)에 사용된 숫자를 모두 합하면 '200'이 된다.
- 19 '음양 사상(陰陽思想)'에서 말하는 최초의 양수는 '一'이고, 최초의 음수는 '二'이다.
- 20 '死'는 '죽다'는 뜻을 가진 한자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47쪽

- 01 石
- 02 ㉠ 苦杯, ㉡ 毛皮
- 03 四十五에 二百三十七를 더하면 二百八十二가 된다.
- 04 성어: 七顛八起 / 겉뜻: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남.
- 05 일본 사람들은 '八'의 모양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져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40~43쪽(교과서 40~45쪽)

- 01 그림을 통해 '石(돌 석)'은 언덕 아래[厂] 돌맹이[口]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임을 알 수 있다.
- 02 ㉠ 苦(쓸 고), 杯(잔 배), ㉡ 毛(털 모), 皮(가죽 피)
- 03 45: 四十五, 237: 二百三十七, 282: 二百八十二
- 04 '七顛八起'는 '여러 번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는 뜻이므로, 여러 번 실패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의 이야기와 어울리는 성어이다.  
🔥 '七顛八起'에서 '七'과 '八'은 '일곱 번'과 '여덟 번'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05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八'을 좋아하지만, '괴롭다'의 뜻을 가진 한자와 발음이 비슷한 숫자 '九'는 꺼려한다.



6 **역사가 담긴 성어**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51쪽

- 01 전차 부대 /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에 탄 여러 명의 전투원이 긴 창이나 활 등으로 무장한 부대
- 02 기병 부대 / 말을 타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적을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는 부대

**생활속의 어휘**

- 1 和音(화음)    2 怨恨(원한)    3 雪景(설경)
- 4 除雪(제설)    5 初有(초유)

- 01 '車'는 '수레'의 의미를 가진 한자로, '거'와 '차' 두 가지의 음을 가지고 있다.
- 02 '馬'는 '말'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답형문제**

52~54쪽

01 ④	01-1 ②	02 ④	02-1 ⑤		
03 ②	03-1 ④	04 ④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①	16 ④	
17 ③	18 ④	19 ④	20 ②	20-1 ④	

★ 되돌아보기 Page 01~20-1 → 48~51쪽(교과서 46~51쪽)

- 01 有(있을 유)-猶(오히려 유)
- 01-1 原(근원, 언덕 원)-怨(원망할 원)
- 02 恩(은혜 은), 惠(은혜 혜)
- 03 眼(눈 안)  
🔥 '眼(잠잘 면)'과 모양이 비슷하므로 주의한다.
- 03-1 雪(눈 설)
- 04 景(경치 경), 民(백성 민), 兵(군사 병), 初(처음 초)
- 05 '有(있을 유)'는 손으로 고깃덩이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하였다.



- 06 '恒(항상 항)'의 부수인 '心(마음 심)'은 심장의 모양을 본 뜬 글자이다.
- 07 恒(항상 항), 久(오랜 구)
- 08 雪景(설경), 雪原(설원)  
 ☀ 기상 현상과 관련된 한자는 '雨(비 우)'가 부수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예 霤(우레 례), 霏(구름 운), 霜(서리 상)
- 09 有(있을 유), 效(본받을 효)
- 10 '백성을 가르치다'는 '서술어+목적어'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訓民'이 된다.
- 11 '知音'은 거문고의 명수였던 백아(伯牙)와 친구 종자기(鍾子期)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 12 '螢雪之功'은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살 여유가 없었던 차윤과 손강이 반딧불과 눈에 반사된 달빛으로 글을 읽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한다.'는 뜻의 '晝耕夜讀(주경야독)'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한다.
- 13 '多多益善'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이라고 풀이 된다.
- 14 '善'은 '좋다'로 풀이되므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5 差(사신 보낼 차), 使(부릴 사)  
 ☀ '差使(차사)'는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을 말한다.
- 16 '有骨'에서 '骨(골)'은 '굵다'의 어간과 음이 같아 음을 빌려 쓴 것이다.
- 17 '結草報恩'의 겉뜻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이다.
- 18 '咸興'은 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나 머물던 곳이다.
- 19 주어진 한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성어는 '過猶不及'이다.
- 20 기병 부대-馬, 전차 부대-車, 포탄 부대-包, 코끼리 부대-象
- 20-1 설명은 '전차 부대'에 대한 내용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55쪽

- 01 내린 눈을 빗자루로 쓰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02 怨恨  
 03 ㉠ 형설지공, ㉡ 결초보은  
 04 성어: 多多益善, 속뜻: 무엇이든 많을수록 더욱 좋음.  
 05 놀이: 장기(將棋), 유방(劉邦)의 한(漢)나라와 항우(項羽)의 초(楚)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을 놀이로 만든 것

★ 되돌아보기 Page 01~05 → 48~51쪽(교과서 46~51쪽)

- 01 '雪'은 '눈 설'이다.  
 02 怨(원망할 원), 恨(한할 한)  
 ☀ '怨'은 '忿(성낼 노)나 '怒(용서할 세)와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03 螢雪之功: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 結草報恩: 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04 '多多益善'은 '무엇이든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으로, 유방과 한신의 대화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05 장기(將棋)에서 붉은색은 유방(劉邦)의 한(漢)나라를 의미하므로 장(將)에 '漢'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푸른색은 항우(項羽)의 초(楚)나라를 의미하므로 장(將)에 '楚'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 7 비유가 담긴 성어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59쪽

01 助長

02 漁父之利

생활속의 어휘

- ① 勤勉(근면)    ② 勞動(노동)    ③ 虎皮(호피)  
④ 退步(퇴보)    ⑤ 假面(가면)

- 01 인형 뽑기방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성 게임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빠져들게 한다는 내용이다.
- 02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서로 경쟁하여 다투는 사이에 일반 휴대 전화를 만드는 회사가 이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 문제**

60~62쪽

- |      |      |        |      |        |
|------|------|--------|------|--------|
| 01 ④ | 02 ② | 02-1 ③ | 03 ③ | 03-1 ③ |
| 04 ④ | 05 ⑤ | 06 ④   | 07 ⑤ | 08 ②   |
| 09 ④ | 10 ② | 11 ①   | 12 ① | 13 ③   |
| 14 ② | 15 ② | 16 ⑤   | 17 ④ | 17-1 ① |
| 18 ③ | 19 ④ | 20 ③   | 21 ② |        |

★ 되돌아보기 Page 01~21 → 56~59쪽(교과서 52~57쪽)

- 01 例(범식 례), 競(다툼 경), 爭(다툼 쟁), 反(돌이킬 반)
- 02 步(걸음 보), 漁(고기 잡을 어), 助(도울 조), 假(거짓, 빌릴 가)
- 02-1 長(길, 자랄 장)
- 03 空-穴, 利-刀(匕), 幼-么, 助-力  
☀ 한자는 부수와 관련된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03-1 虎-虍
- 04 射(쏠 사)
- 05
- 06 讓步(양보):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07 虎(호랑이 호), 患(근심 환)

08 速(빠를 속), 步(걸음 보)

09 退步(퇴보): ① 뒤로 물러감. ② 정도나 수준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됨.

10 勤(부지런할 근), 勉(힘쓸 면)

11 假(거짓 가), 面(얼굴 면)

12 ‘守株待兔’에서 ‘守’는 ‘지키다’로 풀이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이다.

13 ‘守株待兔’에서 농부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14 ‘漁父之利’의 겹뜻은 ‘어부의 이익’이므로 ‘之’는 ‘~’로 풀이된다.

15 ‘五十步百步’는 맹자가 양(梁)나라 왕에게 지금까지의 정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 예를 든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16 ‘朝三暮四’의 겹뜻은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이므로 ‘暮’는 ‘저녁’으로 풀이된다.

17 ‘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림.’으로 풀이되므로 ‘假’가 가장 마지막에 풀이된다.

☀ ‘狐假虎威(호가호위)’에서 여우는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재상 소해(昭奚恤)를 비유한 것이다.

18 狐(여우 호), 虎(호랑이 호)

19 ‘助長(조장)’은 ‘자라는 것을 돕다.’로 풀이되므로 ‘長’은 ‘자라다’의 뜻이다.

20 ‘助長(조장)’은 좋지 않은 일을 부추긴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助長(조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성어이다.

21 ‘漁父之利’는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소대(蘇代)가 연(燕)나라를 공격하려는 조(趙)나라의 왕에게 화친을 권하면서 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이다.

☀ ‘漁父之利(어부지리)’에서 도요새와 조개는 조(趙)나라와 연(燕)나라를 비유한 것이고, 어부는 진(秦)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63쪽

- 01 步
- 02 ㉠ 假想, ㉡ 假說
- 03 ㉠ 助長(조장), ㉡ 狐假虎威(호가호위)
- 04 고지식하게 옛일에 얽매어 변화할 줄 모름.
- 05 성어: 漁父之利(어부지리) / 비유 대상: 도요새는 조나라를 비유하고, 조개는 연나라를 비유한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56~59쪽(교과서 52~57쪽)

- 01 뜻이 '걸음'인 한자를 써야 한다.
- 02 假想(가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 사실처럼 가정하여 생각함.  
假說(가설): 임시로 세운 이론  
 '說'은 '設(배울 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3 ㉠ 助(돕다 조), 長(자랄 장)  
㉡ 狐(여우 호), 假(빌릴 가), 虎(호랑이 호), 威(위엄 위)
- 04 '守株待兔'는 전국 시대(戰國時代) 말기의 사상가인 한비(韓非)가 고대의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정치가 이상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이야기이다.  
 '守株待兔(수주대토)'는 『한비자(韓非子)』, 『오두편(五蠹篇)』에 나오는 말이다.
- 05 '漁父之利'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는 조(趙)나라가 연(燕)나라를 공격하면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다 어부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는 것처럼 진(秦)나라가 이익을 얻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漁父之利(어부지리)'의 이야기를 만든 소대(蘇代)는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유명한 외교가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통합형문제**

64~65쪽

- |        |        |        |        |      |
|--------|--------|--------|--------|------|
| 01 ㉠   | 01-1 ㉡ | 02 ㉣   | 02-1 ㉤ | 03 ㉢ |
| 04 ㉠   | 05 ㉡   | 05-1 ㉤ | 06 ㉢   | 07 ㉤ |
| 07-1 ㉡ | 07-2 ㉢ | 08 ㉤   | 09 ㉤   | 10 ㉢ |

- 01 兆(조짐, 조 조), 助(도울 조), 朝(아침 조)

- 01-1 '友(벗 우), 及(미칠 급), 反(돌이킬 반)'의 부수는 모두 '又(또 우)'이다.

- 02 幼(어릴 유) - 有(있을 유)

- 03 食(부수: 食), 皮(부수: 皮), 白(부수: 白), 助(부수: 力)

- 04 '有(있을 유)'는 손으로 고깃덩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有'에서 '月'은 '달 월'이 아니라 '肉(고기 육)'이다.

- 05 除雪(제설): 쌓인 눈을 치움. 勤勉(근면): 부지런히 일하여 힘씀. 慶祝(경축):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함. 退步(퇴보): 뒤로 물러감.

- 05-1 茂盛(무성): 풀이나 나무가 자라서 우거짐. 讓步(양보):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勇敢(용감):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참. 怨恨(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 06 假說(가설): 임시로 세운 이론. 假面(가면): 진짜가 아닌 얼굴. 中興(중흥): 중간에 번성하여 다시 일어남. 中立性(중립성):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서 있는 성질

- 07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 것을 본 농부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토끼가 다시 와서 부딪혀 죽기만 바라다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 07-1 황희(黃喜) 정승이 왕에게 선물로 받은 계란이 모두 쪼아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 07-2 '辛'과 '苦'는 어려움과 고생을 의미한다.

- 08 '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다.'로 풀이되므로 '빌리다'는 뜻을 가진 '假'가 가장 마지막에 풀이된다.

 한문에서 '~을/를'로 풀이되는 목적어는 서술어 뒤에 위치한다.

- 09 ㉠ 형용사, ㉡ 수사, ㉢ 동사, ㉤ 동사

- 10 '漁父之利'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에서 어부는 연(燕)나라와 조(趙)나라가 다투면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는 진(秦)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漁父(어부)'에서 '漁(고기 잡을 어)'를 '魚(물고기 어)'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05 舌(부수: 舌), 豆(부수: 豆)
- 05-1 '味(맛 미)'의 부수는 '口(입 구)'이다.
- 06 '豆(콩 두)'는 음식을 담은 그릇 모양을 본뜬 글자로, 후에 '콩'을 뜻하게 되었다.
- 07 妙(묘할 묘), 味(맛 미)
- 08 勸(권할 권), 告(알릴 고)
- 09 '생선, 조개류 따위를 말린 식품'은 '乾魚物(건어물)'이라고 한다.
- 10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所得(소득)'이라고 한다.
- 11 口(입 구), 舌(혀 설), 數(셈 수)
- 12 烏(까마귀 오)
- 13 '烏飛梨落'은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로 풀이된다.
- 14 '吾鼻三尺'의 속뜻은 '내 일도 감당하기 어려워 남의 사정을 돌볼 여유가 없음.'이다.  
❗ '吾鼻三尺'은 '내 콧물이 석 자나 흘러 내렸다.'는 뜻이다.
- 15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로 풀이되는 문장이므로 '얻다'로 풀이되는 '得'이 ㉠에 들어가야 한다.
- 16 '渾全川'은 '은 내를 흐린다.'로 풀이되므로 '渾'이 가장 마지막에 풀이된다.
- 17 '一魚가 渾全川이다.'는 '한 사람의 좋지 못한 행동이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 18 '去言何美'는 '가는 말이 어찌 아름답겠는가?'라고 풀이되므로 '가는 말'로 풀이되는 '去言'과 '어찌 아름답겠는가?'로 풀이되는 '何美'로 끊어 읽어야 한다.
- 19 '牛耳讀經'은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牛耳讀經'과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말 귀에 염불', '쇠코에 경 읽기가 있다.

- 20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뜻한다.  
❗ 같은 의미의 영어 속담으로는 'It is too late to lock the stable when the horse has been stolen(말 잃은 뒤에 마구간 잠그기는 이미 늦다.)'가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75쪽

- 01 ㉠ 豆, ㉡ 魚
- 02 ㉠ 勸告, ㉡ 赤豆
- 03 ㉠ 오비이락, ㉡ 종두득두
- 04 '吾鼻三尺'은 '내 코가 석 자다.'로 풀이되므로 '吾鼻'는 '주어'이고, '三尺'은 서술어인 '주술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05 한국 속담: 누워서 떡 먹기 / 의미: 아주 쉬운 일

★ 되돌아보기 Page 01~05 → 68~71쪽(교과서 62~67쪽)

- 01 '豆'는 음식을 담은 그릇 모양을 본뜬 글자이고, '魚'는 물고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02 ㉠ 勸(권할 권), 告(알릴 고), ㉡ 赤(붉을 적), 豆(콩 두)
- 03 ㉠ 烏(까마귀 오), 飛(날 비), 梨(배 리), 落(떨어질 락)  
 ㉡ 種(심을 중), 豆(콩 두), 得(얻을 득), 豆(콩 두)  
❗ '落'은 쓸 때 '낙(落)'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04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고, '서술어'는 움직임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말이다.
- 05 '누워서 떡 먹기'는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비슷한 속담으로 '누운 소 타기'가 있다.



## 9 마음에 글귀가 쏙쏙

시험에 잘 나오는 **인성 함양 문제**

79쪽

- 01 임전무퇴의 정신
- 02 입지(立志)의 중요성

**생활속의 어휘**

- ① 根絕(근절)    ② 結氷(결빙)    ③ 瓦解(와해)
- ④ 好戰的(호전적)    ⑤ 顔面(안면)

- 01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 충무공 이순신의 좌우명으로서, ‘임전무퇴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으며,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서의 군센 결의를 느낄 수 있다.
- 02 “먼저 그 뜻을 크게 하여 성인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조선 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율곡 이이(李珥)의 좌우명으로, ‘입지(立志)의 중요성’을 자신에 대한 수양과 경계의 지침으로 삼은 것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 문제**

80~82쪽

- |        |      |        |        |        |
|--------|------|--------|--------|--------|
| 01 ⑤   | 02 ② | 03 ①   | 03-1 ② | 04 ⑤   |
| 04-1 ① | 05 ⑤ | 06 ④   | 07 ②   | 08 ②   |
| 09 ③   | 10 ④ | 11 ①   | 12 ⑤   | 13 ④   |
| 13-1 ⑤ | 14 ③ | 14-1 ② | 15 ①   | 15-1 ① |
| 16 ⑤   | 17 ① | 17-1 ② | 18 ②   | 19 ③   |
| 20 ②   |      |        |        |        |

★ 되돌아보기 Page 01~20 → 76~79쪽(교과서 68~73쪽)

- 01 細(가늘 세), 絶(끊을 절), 紙(종이 지)
- 02 ‘黑(검을 흑)’은 제부수 한자로 총획이 12획이다.
- 03 瓦解(와해), 海氷(해빙), 難解(난해), 解散(해산)
- 03-1 嗜好(기호): 즐기고 좋아함. 好戰(호전): 싸우기를 좋아함.
- 04 ‘面(얼굴 면)’은 눈을 특히 강조한 얼굴의 모양을 본뜬 한자이다. 후에 ‘갈’ 등으로 뜻이 확대되어 쓰였다.

04-1 ‘角’은 끝이 뾰족한 소 같은 동물의 뿔의 모양을 본뜬 한자이다.

05 ‘易’은 ‘바꾸다’는 뜻으로 쓰면 ‘역’으로, ‘쉽다’는 뜻으로 쓰면 ‘이’로 읽는다. ‘쉽다’의 반의어는 ‘어렵다’이다.

06 結(뭉을 결), 絲(실 사), 紅(붉을 홍)

07 ‘結氷’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이다. 얼음이 녹는 것은 ‘解氷’이다.

08 ‘難解(난해)’, ‘難易(난이)’. ‘難易’는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끼리 결합된 어휘이다.

09 그림은 몸을 뒤로 뉘어, 위치상으로 등[背] 쪽의 면[面]이 가로 막대를 향하고 눕는 동작인 배면뛰기이다.

10 포스터의 빈칸에 제시된 어휘를 대입해 보면 ‘根絶’이 들어가야 한다.

11 (개)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근목자혹’이다.

 ‘墨(묵)’과 ‘黑(흑)’은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13 뭉은[結] 사람[者]이 그것[之]을 풀어야[解] 한다.

13-1 (개)는 ‘먹[墨]을 가까이[近] 하는 사람[者]은 검어진다[黑].’는 뜻이다.

14 ‘쏟(알릴 고)’는 ‘윗사람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다.’는 뜻으로 쓸 때는 ‘곡’으로 읽는다.

14-1 이 문장은 ‘부모님께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나가야 한다.’는 뜻이므로 ‘쏟(고)’를 ‘곡’으로 읽는다.

15 ‘良藥’은 ‘좋은 약’이라는 뜻이다.

16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리고 인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17 허사 ‘於’는 ‘~에’, ‘~에서’, ‘~에게’, ‘~보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개사(介詞)이다.

17-1 허사 ‘而’는 순접과 역접의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接續詞)이다.

- 18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이 '貴人'의 사전적 뜻이다.
- 19 易(쉽다) ↔ 難(어렵다)
- 20 (ㄹ)은 '뭉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83쪽

- 01 ㉠ 어머니, ㉡ 好
- 02 ㉠ 나갈 때는 반드시 아뢰어 허락을 받아라. ㉡ 돌아오다
- 03 結者解之(결자해지)
- 04 (1) 良藥苦口, (2) 충고의 말은 듣기는 싫지만 따르면 행실에 도움이 된다.
- 05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76~79쪽(교과서 68~73쪽)

- 01 '好'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데서 '좋다'라는 뜻이 생겼다.  
 [🔍] '好'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좋은'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 02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외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反'은 '돌이키다'는 뜻인데, 나간 것을 돌이키면 '돌아오다'는 행위가 된다.
- 03 '結者解之'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 04 '良藥苦口'는 '良藥苦口而利於病, 忠言逆耳利於行'을 사자성어 형태로 줄여 쓴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리나 자신에게 이로움을 이르는 말이다.
- 05 죽고자[死] 하면[則] 살고[生], 살고자[生] 하면[則] 죽는다[死].

시험에 잘 나오는 **통합형문제**

84~85쪽

- |        |        |      |        |        |
|--------|--------|------|--------|--------|
| 01 ④   | 01-1 ⑤ | 02 ① | 02-1 ⑤ | 03 ③   |
| 04 ③   | 04-1 ⑤ | 05 ③ | 06 ②   | 07 ⑤   |
| 07-1 ② | 07-2 ③ | 08 ② | 09 ③   | 09-1 ④ |
| 10 ②   |        |      |        |        |

01 而(말 이을 이) - 旣(이미 기)

01-1 烏(까마귀 오)

02 經(경서 경)

02-1 霜(서리 상)

03 氣(부수: 气), 美(부수: 羊), 尺(부수: 尸), 黑(부수: 黑)

[🔍] '美'는 '羊'과 '大'를 결합하여 만든 한자이다.

04 好 → 女[어머니] + 子[아이]

04-1 解 → 角[소의 뿔] + 刀[칼] + 牛[소]

05 勸告(권고), 妙味(묘미), 製紙(제지), 結氷(결빙)

06 得點(득점): 점수[點]를 얻음[得].

07 (ㄹ)은 '한 마리 물고기가 온 내를 흐른다.'로 풀이된다.

[🔍] '一魚가 渾全川이라'는 속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와 같은 뜻이다.

07-1 墨: 나쁜 사람, 黑: 나쁜 버릇에 물들다

08 ㉠ 주어, ㉡ 서술어, ㉢ 주어, ㉣ 보어

09 (ㄹ)의 '利於病'은 '병에 이롭다.'로 풀이된다.

09-1 出必告(출필곡)하고 反必面(반필면)하라.

10 (ㄹ)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近墨者] 검어진다[黑].'로 풀이되므로 '近墨者 ∨ 黑'으로 끊어 읽어야 한다.







- 03 '示'는 제기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로, '示'가 부수인 한자는 '귀신'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
- 04 '精(자세할 정)'은 '米'와 '靑'이 결합한 형성자이다.
- 05 ① 宀-山, ② 首-貝, ③ 口-口, ④ 二-ノ, ⑤ 宀-穴
- 06 '授與'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준다는 뜻이다. '급여'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준다는 뜻으로, '給與'로 쓴다.
- 06-1 曾祖(증조), 單元(단원), 關與(관여), 地表(지표)
- 07 '禁煙'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흡연(吸煙)'이다.
- 08 新(새 신), 與(더불어), 頌(거느릴 령), 禁(금할 금), 冷(찰 랭)
- 09 祝賀(축하):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함.
- 10 '精神'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이다.
- 11 ②, ③, ④, ⑤는 일본과 영토 분쟁이 생겼던 섬들이 아니다.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섬을 찾는다.
- 12 '之'는 대명사로 쓰였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이다. 앞에 언급된 것을 찾는다.
- 13 이 글은 조선(朝鮮) 후기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 14 원래[元] 일본(日本)의[之] 땅[地]이 아니다[非].
- 14-1 '非'는 서술어로, 가장 마지막에 풀이한다.
- 15 '朝宗'은 '시조가 되는 조상', 즉 '조상'이라는 뜻이다.  
🔴 조상의 강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강토라는 뜻이다.
- 16 ⑤는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땅인 '강토'이다. 국토는 '國土'로 쓴다.
- 17 그것[之]을 주어서는[與] 안 된다[不可].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거나 줄 수 없다는 뜻이다.

- 17-1 '與'는 두 사람이 함께 새끼를 꼬고 건네주는 모양에서 '주다', '더불어' 등의 뜻이 생겼다.
- 18 제시된 설명은 개사 '於'에 대한 것이다.
- 18-1 '於'와 쓰임이 같은 허사로는 '乎'와 '于'가 있다.
- 20 이 글은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독도를 일본에게 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95쪽

- 01 與    02 주술목보 구조    03 (1) 허사, (2) 於
- 04 新羅 → 高麗 → 我朝(朝鮮)
- 05 獨島(독도)가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독도 연구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88~89쪽(교과서 78~81쪽)

- 01 '與'는 두 사람이 함께 새끼를 꼬고 건네주는 모양에서 '주다', '더불어' 등의 뜻이 생겼다.
- 02 주술목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와 보어가 뒤에 놓인다.
- 03 허사는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 문장에서 '於'는 개사로 쓰였다.
- 04 '高麗'는 독도를 '新羅'에게서 이어받았고 '我朝[조선]'는 독도를 '高麗'에게서 이어받았다. 우리나라 역사는 나라가 바뀌어도 왕조만 바뀌었을 뿐 민족이나 혈통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조선(朝鮮)은 신라(新羅)의 영토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 05 독도가 신라 시대로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밝히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 II 별, 어떻게 볼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99쪽

**01** 12단까지 내부를 채우고 있는 흙 때문에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기단의 길이가 맨 위 정자석 길이의 두 배인 것도 구조물에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02** (1) 1년, (2) 24절기

**생활속의 어휘**

- ① 堅固(건고) ② 貧困(빈곤) ③ 方向(방향)  
④ 處方(처방) ⑤ 高熱(고열)

**01** 내부는 12단까지 흙이 채워져 있고, 그 위는 비어 있는데, 내부를 채우고 있는 흙 때문에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밑의 받침이 되는 부분인 기단의 길이가 맨 위 정자석 길이의 두 배나 되어서 구조물에 전체적인 안정감을 준다.

**02** 몸체를 이루고 있는 약 360개의 돌은 1년을, 중간에 있는 출입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각각 12단씩 나뉜 것은 각각 24절기를 상징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라형 문제**

100~102쪽

- |               |             |               |               |               |
|---------------|-------------|---------------|---------------|---------------|
| <b>01</b> ⑤   | <b>02</b> ⑤ | <b>03</b> ③   | <b>03-1</b> ① | <b>04</b> ①   |
| <b>05</b> ④   | <b>06</b> ① | <b>06-1</b> ③ | <b>07</b> ④   | <b>07-1</b> ① |
| <b>08</b> ①   | <b>09</b> ① | <b>10</b> ④   | <b>11</b> ①   | <b>12</b> ①   |
| <b>12-1</b> ⑤ | <b>13</b> ① | <b>14</b> ④   | <b>15</b> ②   | <b>15-1</b> ④ |
| <b>16</b> ⑤   | <b>17</b> ③ | <b>17-1</b> ① | <b>18</b> ④   | <b>19</b> ⑤   |
| <b>20</b> ③   |             |               |               |               |

★ 되돌아보기 Page 01~20 → 96~99쪽(교과서 84~89쪽)

**01** 洗(씻을 세, 총 9획), 季(계절 계, 총 8획), 向(향할 향, 총 6획), 低(낮을 저, 총 7획), 技(재주 기, 총 7획)  
 '才'는 '手'의 변형이다.

**02** ① 宀-宀, ② 宀-八, ③ 日-田, ④ 土-阜, ⑤ 口-口

**03** 通(통할 통), 練(익힐 련), 洗(씻을 세), 滿(찰 만), 驚(놀랄 경)

**03-1** 洗(씻을 세), 降(내릴 강), 向(향할 향), 困(곤할 곤), 通(통할 통)

**04** 低(낮을 저), 困(곤할 곤), 度(법도 도), 驚(놀랄 경), 迮(이를 지)

**05** 度(법도 도) - 圖(그림 도)

**06** 그림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를 표현한 것이다.

**06-1** '高度'는 평균 해수면 따위를 0으로 하여 측정한 대상 물체의 높이를 말한다.

**07** '堅固'는 '굳고 단단하다.'는 뜻이다. ④는 '허술'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08** '上'은 '위', '임금', '오르다' 등의 뜻으로 자주 쓰인다.

**09** 음악은 음의 장단, 강약, 박자와 '고저(高低)'로 이루어진다.

**10** 立秋: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處暑: 더위가 물러가는 절기, 白露: 흰 이슬이 내리는 절기, 寒露: 찬 이슬이 내리는 시기의 절기, 霜降: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의 절기

**11** 제시된 문화재 중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근, 가운데가 통한 구조물은 첨성대밖에 없다.

**12** 문장의 도입부에서 섣덕 여왕 때 만들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主'는 '주인', '임금' 등의 뜻이 있다. '君主'나 '主上'은 '主'가 '임금'의 뜻으로 쓰인 어휘이다. '女主'는 '女王'과 같은 말이다.

**14** 돌[石]을 다듬어[鍊] 대(臺)를 쌓다[築].

**15**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근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

**15-1** 높이[高]가 십구척(十九尺)이다.

 '高'의 '높다'는 형용사로 쓰이지 않고 '높이'라는 명사로 쓰였다.

**16** 그 가운데를 뚫어 놓았으므로 속이 비어 있는 구조이다.

**17** '上下'는 '위와 아래', '윗사람과 아랫사람', '귀하고 천함.', '좋고 나쁨.', '오르고 내림.', '책의 상권과 하권'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으므로 문맥과 상황에 맞게 풀이하여야 한다.

- 18 ‘而’의 쓰임에 대한 물음이다.
- 19 이 문장을 통해서서는 침성대를 직접 제작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는 알 수 없다.
- 20 침성대는 해외로 반출된 적이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03쪽

01 (1) 口, (2) 경계로 둘러싸인 지역

02 (1)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글며, 높이는 열아홉 자이다.  
(2) 天文

03 (1) 접속사, (2) 而

04 (1) 上, 下, 高, (2) 위는 네모나며 아래는 둥글고, 높이는 열아홉 자이다.

05 입춘(立春)-우수(雨水)-경칩(驚蟄)-춘분(春分)-청명(清明)-곡우(穀雨)

★ 되돌아보기 Page 01~05 → 96~99쪽(교과서 84~89쪽)

- 01 ‘口’는 둘러싸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口’가 들어간 한자는 경계로 둘러싸인 지역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
- 02 ‘天文’은 우주와 천체의 온갖 현상과 그에 내재된 법칙성을 말한다.
- 03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이다.
- 04 제시된 문장은 주술 구조가 세 번 반복된 문장이다. 위, 아래, 높이는 주어로 쓰였고, ‘네모나다’, ‘둥글다’, ‘십구척이다.’는 서술어로 쓰였다.
- 05 절기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기후의 표준점이다. 15일 내지 16일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1년에 24절기가 있다. 각 계절에 6개의 절기가 들어 있어서 이 절기가 가면 계절이 바뀌게 된다.



## 12 명절, 년 누구나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문제** 107쪽

- 01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음력 1월 1일),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설날에는 떡국 등의 음식을 먹었으며, ‘차례’와 ‘세배’, ‘웃놀이’ 등의 놀이를 즐겼다.
- 02 송편은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추석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고 하는데, 그해 가을에 수확한 햅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생활속의 어휘**

- ① 老益壯(노익장) ② 日出(일출) ③ 恒星(항성)
- ④ 敬老(경로) ⑤ 八色鳥(팔색조)

- 01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원일(元日)이라고도 한다.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으로, 설날은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을 새기는 날이다. 음식은 떡국 등을 먹었으며, 차례, 세배, 덕담, 설빔, 복조리 걸기, 웃놀이, 널뛰기 등의 세시 풍속이 있다.
- 02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고 하는 추석에는 그해 가을에 수확한 햅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또 햅쌀로 빚은 술인 백주(白酒)를 마시고, 가무(歌舞)도 함께 즐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문제** 108~110쪽

- |        |        |      |        |      |
|--------|--------|------|--------|------|
| 01 ①   | 01-1 ③ | 02 ⑤ | 02-1 ② | 03 ① |
| 03-1 ② | 04 ③   | 05 ① | 06 ③   | 07 ② |
| 07-1 ④ | 08 ②   | 09 ③ | 09-1 ① | 10 ④ |
| 11 ④   | 12 ②   | 13 ② | 14 ①   | 15 ④ |
| 16 ③   | 17 ④   | 18 ⑤ | 19 ②   | 20 ⑤ |

★ 되돌아보기 Page 01~20 → 104~107쪽(교과서 90~95쪽)

- 01 ‘日’은 해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日’이 들어간 한자는 ‘날’, ‘밝음’ 등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
- 01-1 ‘入’은 ‘나누다’가 본래의 뜻이었는데 ‘여덟’의 뜻으로 쓰이자, 후에 ‘나누다’의 의미로 ‘分’자가 만들어졌다.
- 02 ‘臼’은 제부수이며, ‘東’은 ‘木’이 부수이다.

- 03 그림은 옛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다.
- 03-1 ‘服’은 ‘옷’, ‘복종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衣服’은 뜻이 비슷한 한자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진 어휘이다.
- 04 年(나이 년), 少(적을 소), 色(빛 색)
- 05 晡(옛 석) - 夕(저녁 석)
- 06 그림은 명절에 어른께 세배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07 ‘着席’은 ‘자리에 앉다.’는 뜻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起立(기립)’으로 표현한다.
- 07-1 ‘養老’는 ‘노인을 위로하여 안락하게 지내도록 받든다.’는 뜻이다.
- 08 ‘朋’과 ‘友’는 모두 뜻이 ‘벗’이다.
- 09 ‘族戚’은 ‘親戚’과 뜻이 비슷한 어휘로, ‘족척’으로 읽는다.
- 10 端(바를, 첫째 단), 午(낮, 일곱째 지지 오)  
 ‘午’와 ‘牛’는 모양이 비슷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11 설날과 추석은 각각 음력으로 1월 1일, 8월 15일이다.
- 12 ‘着’은 ‘입다’, ‘붙다’의 뜻으로 쓰인다. ‘着’이 ‘입다’는 뜻으로 쓰이면 문맥에 따라 풀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 13 설에 옷을 차려입는 일이나 그 옷을 ‘歲粧(세장)’이라고 한다.
- 14 어조사 ‘者’는 ‘사람’, ‘~것’, ‘~에’ 등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 15 歲(해 세), 粧(단장할 장)
- 16 직역하면 ‘족척(族戚)과 장로(長老)를 찾아뵙는[訪] 것을 세배(歲拜)라고 한다(曰)’이다.
- 17 ‘東’은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 동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쓴다.
- 18 설날과 추석 모두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다. 예전에 ‘작은 설’로 부르기도 했던 날은 설 하루 앞날이나 ‘冬至(동지)’였다.

- 19 ‘上元’은 정월 대보름을 부르는 말이다. ‘寒食(한식)’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의 풍속이 있는 명절이다.
- 20 떡국은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 먹는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11쪽

- 01 ㉠ 지팡이, ㉡ 늙을 로
- 02 (1) 耆, (2) 설빔
- 03 우리나라 풍속에서 추석이라 부르고, 또 가배라고도 말한다.
- 04 떡국 - 설날, 부럼 - 정월 대보름, 송편 - 추석, 수리취떡 - 단오, 오곡밥 - 정월 대보름
- 05 (1)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강강술래 등의 놀이를 한다.  
 (2) 송편이나 햇과일 등의 음식을 먹는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104~107쪽(교과서 90~95쪽)

- 01 ‘老’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늙다’의 뜻을 지닌 한자이다.
- 02 ‘者’는 어조사로 쓰였으며, ‘수식어 + 者’의 형태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 03 추석과 가배는 같은 명절로,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 04 명절에 먹는 음식이 각각 다르다. 떡국은 설날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어 먹는다. 단오에는 수리취떡이나 썩떡, 망개떡을 만들어 먹는다.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과 햇과일을 먹는다.
- 05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밤에는 강강술래 같은 놀이를 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통합형문제**

112~113쪽

- |        |        |        |        |        |
|--------|--------|--------|--------|--------|
| 01 ⑤   | 01-1 ④ | 02 ②   | 02-1 ② | 03 ③   |
| 03-1 ④ | 04 ④   | 04-1 ② | 05 ③   | 06 ②   |
| 06-1 ④ | 07 ①   | 07-1 ④ | 08 ④   | 08-1 ③ |
| 09 ④   | 09-1 ② | 10 ⑤   |        |        |



- 01 ‘高’는 높은 성이나 망루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01-1 ‘日’은 해의 모양을 본떠 ‘해’, ‘날’ 등의 뜻으로 쓰인다.
- 02 關與(관여), 給與(급여), 與否(여부)
- 02-1 高熱(고열), 高度(고도), 高低(고저)
- 03 祖(조상 조), 禁(금할 금), 神(귀신 신), 祝(비 축), ‘示’가 부수인 한자는 ‘귀신’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  
 ☀️ ‘示’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03-1 ‘日’은 해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04 ‘冬至(동지)’는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북반구에서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 04-1 ‘端午(단오)’는 우리의 명절 중 하나로, 음력으로 5월 5일이다.  
 ☀️ ‘端午(단오)’를 절기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5 單元(단원), 地表(지표), 陸上(육상), 早起(조기)
- 06 ‘之’는 어조사로 주로 ‘수식어 + 之 + 피수식어’의 구조로 쓰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의’, ‘~하는’ 등으로 풀이하거나 대명사로 쓰여 ‘그(그것, 그곳)’ 등으로 풀이한다.  
 ☀️ 한문의 품사는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인 활용까지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06-1 ①~⑤는 모두 ‘上下’의 여러 가지 뜻에 해당한다. 문맥에 맞는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07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를 ‘병렬(竝列) 관계’라고 한다. ‘女主’는 앞에 있는 한자가 뒤의 한자를 수식해 주는 관계의 단어이다.
- 07-1 ‘高低’는 ‘높다’는 뜻의 한자와 ‘낮다’는 뜻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로, 두 한자는 성분이 같다.
- 08 주술, 주술목, 주술보, 주술목보 구조의 문장에서 서술어는 항상 마지막에 풀이한다.
- 09 ④는 설날 행해지는 풍속과 그 이름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송편은 추석 명절에 먹는다.

09-1 ‘춘절(春節)’은 중국에서 설을 부르는 말이다.

10 ㉠에 등장하는 ‘高麗’, ‘新羅’는 우리나라의 옛 왕조 국가의 이름이고, ‘日本’은 동해 바다 건너 이웃 국가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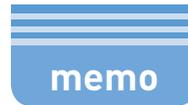
시험에 잘 나오는 **논술명문제**

114쪽

실제의 참 모습을 가르치거나 특정 문화유산의 문화·역사적 의미를 깨우쳐 주려 하지 않고 주문처럼 찬란하다고 외친다는 것은 결과가 훨씬 보이는 교육 방법이다. 앞으로의 문화 정책을 청소년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첨성대에 대한 교육에는 단지 동양 최고의 천문대라는 찬사보다, 첨성대가 왜 탑이 아니라 대(臺)인지, 모양은 왜 그런지, 이 모양의 형태미와 곡선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구조물의 각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며,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대폭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글을 읽고, 우리의 문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문화유산과 역사 인식의 교육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생각해 본다.



-----

-----

-----

-----

-----

-----

-----

-----

-----

-----

-----

# V 가만가만, 읊조리며 느껴요

## 13 밤틀 삼 형제라고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119쪽

- 01 우레 소리: 뱃돌을 돌릴 때 나는 소리  
누런 구름 조각: 뱃돌에 갈려서 뱃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보리
- 02 어린 나이에도 재치가 돋보이는 김시습에게 비단을 주어 칭찬하기도 하고, 아울러 어린 김시습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비단을 하사하면 어떻게 가져가는지 지켜보기 위해

### 생활속의 어휘

- ① 胸部(흉부)      ② 腹案(복안)      ③ 論難(논란)
- ④ 男妹(남매)      ⑤ 難破船(난파선)

- 01 뱃돌로 보리를 갈 때 그 소리를 ‘우레 소리’에 비유하고, 흘러나오는 보리를 ‘누런 구름’에 비유했다.
- 02 세종 대왕이 김시습을 칭찬하고 그의 재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여러 필의 비단을 하사하자, 김시습은 그 비단의 끝을 모두 이어서 끌고 갔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타형 문제**

120~122쪽

- |        |        |         |      |        |
|--------|--------|---------|------|--------|
| 01 ⑤   | 01-1 ① | 02 ⑤    | 03 ③ | 04 ⑤   |
| 05 ④   | 05-1 ④ | 05-2 ②  | 06 ⑤ | 07 ④   |
| 08 ③   | 09 ④   | 10 ①    | 11 ⑤ | 12 ④   |
| 12-1 ① | 13 ④   | 14 ⑤    | 15 ⑤ | 15-1 ⑤ |
| 16 ③   | 17 ①   | 18 ②    | 19 ⑤ | 20 ②   |
| 21 ①   | 21-1 ① | 22 ①, ② | 23 ⑤ |        |

★ 되돌아보기 Page 01~23 → 116~119쪽(교과서 100~105쪽)

- 01 隨(따를 수)
- 01-1 橋(다리 교)-敎(가르칠 교)
- 02 雖(비록 수)
- 03 ‘胸(가슴 흉)’의 부수는 ‘肉’이다.
- 04 ‘책임을 면하다.’에서는 ‘免(면할 면)’이 쓰인다.
- 05 ‘肉(고기 육)’은 ‘月’이 변형되기 전의 모양이다.

05-1 ‘明(밝을 명)’의 부수는 ‘日(해 일)’이다.

05-2 胸(가슴 흉), 腹(배 복)

06 ‘段(구분, 층계 단)’은 ‘段’ 부, 총 9획이다.

07 肉-육-고기

 ‘肉(고기 육)’과 ‘內(안 내)’의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8 腹部-배 부분

09 論難(논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 難破船(난파선): 항해 중에 폭풍우 따위를 만나 부서지거나 뒤집힌 배

10 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침. 혹은 그 상치 落馬: 말에서 떨어지다.

11 ‘難(어려울 난)’은 원래는 어떤 새의 상형이었지만 본 뜻을 잃어버리고, 후에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12 이 시는 이산해의 「밤[乘]」이다.

12-1 여기서 ‘腹(배 복)’은 ‘밤송이’를 뜻한다.

13 오언 절구의 운자는 주로 2, 4구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14 難弟-난제

15 이 시는 이산해가 어릴 때 ‘밤[乘]’을 소재로 쓴 시이다.

16 生-나다

17 효자-아들(자식), 흑임자-씨앗, 자시, 병자호란-첫째 지지, 공자-선생님(존칭)

18 가운데 끼어서 두 불이 평평하다.

19 가운데 녀석 두 불이 평평하네[쭈].

20 오언시는 주로 2자/3자로 끊어 읽는다.

21 先後(선후): 앞서거나 뒤서거나, 앞과 뒤, 먼저와 나중

21-1 ‘後(뒤 후)’의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는 ‘先(먼저 선)’이다.

- 22 莫上莫下(막상막하):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伯仲(백중): ① 맏이와 둘째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재주나 실력, 기술 따위가 서로 비슷하여 낮고 못함이 없음. 또는 그런 형세. 그 외에도 비슷한 뜻으로 '五角(호각)' 등이 있다.
- 23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고[難弟], 또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네[難兄].

- 05 시는 보통 산문과 다르게 운율을 느낄 수 있는데, 한시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한시에서 운율을 살리는 방법으로 띄어 읽기와 압운법이 있다.
- 06 '男(사내 남)'은 '밭[田]을 쟁기[力]로 가는 사람'이라는 데서 '사내'라는 뜻이 생겼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 문제** 123쪽

- 01 中男(중남)      02 자수선후락  
03 難兄難弟      04 先後
- 05 한시에서 운율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띄어 읽기와 압운법이 있다. 띄어 읽기는 오언시일 경우 주로 2자/3자, 칠언시일 경우 주로 4자/3자로 띄어 읽는다. 또한 압운법이 있는데,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오언시에서는 짝수 구(2구, 4구) 끝에, 칠언시에서는 첫째 구(1구)와 짝수 구(2구, 4구) 맨 끝에 둔다.
- 06 男

★ 되돌아보기 Page 01~06 → 116~119쪽(교과서 100~105쪽)

- 01 그림의 ㉠은 가운데 끼어서 양면이 눌린 밤톨을 가리킨다. 시인은 3개의 밤톨을 '子'로 의인화시켜 나타냈다. 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2음절이므로 '中男'만이 정답이 된다.
- 02 일복생삼자/중남양면평/자수선후락/난제역난형
- 03 '難兄難弟'는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04 '兄弟(형제)'는 형과 아우라는 의미로, 병렬 관계 중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본문에서 또 다른 상대되는 의미의 단어는 '先後(선후)'이다.

14 고향이 그리워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127쪽

- 01 이백과 두보는 당나라 때 시인으로, 파란만 장한 삶을 살며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고, 이 두 시인의 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를 지을 때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02 이백의 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여 낭만적인 데 비해, 두보의 시는 망해 버린 나라와 주인 없이 폐허가 되어 가는 성 안의 모습을 애처롭게 표현하고 있다.

생활속의 어휘

- ① 雪上加霜(설상가상)    ② 電鐵(전철)    ③ 展望(전망)  
④ 走馬看山(주마간산)    ⑤ 絕望(절망), 希望(희망)

- 01 '泰山北斗'는 중국 제일의 명산인 '태산(泰山)'과 북두칠성의 '북두성(北斗星)'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학문, 예술의 대가, 또는 남에게 존경받는 뛰어난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 02 전반적으로 이백의 시는 낭만적이고 귀족적이며, 두보의 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리면서도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인간의 도리, 가족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01 ①	01-1 ②	02 ①	02-1 ③	02-2 ①
03 ③	04 ⑤	05 ②	06 ③	07 ⑤
07-1 ⑤	08 ⑤	08-1 ⑤	08-2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⑤	14 ⑤
15 ②	16 ①	16-1 ①	17 ①	18 ④
19 ①	20 ②	20-1 ②	21 ①	22 ③

★ 되돌아보기 Page 01~22 → 124~127쪽(교과서 106~111쪽)

01 ① 예, 옛날 (고), ② 일부러 (고), ③, ④ 일, 사고 (고), ⑤ 죽다 (고)

01-1 事故(사고):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02 ① 옳을 (시), ②~⑤ 부사형 접미사

02-1 是日(시일): 이날. 是非(시비): 옳고 그름

02-2 展望(전망), 絶望(절망)

03 ①, ②, ④, ⑤-9획, ③-10획

04 국어사전의 가나다순으로 하면 '烈(렬), 士(사), 試(시), 應(응), 泰(태)' 순서이다.

05 李(오얏 리)

06 恩惠(은혜):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恩師(은사): 은혜로운 스승.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을 높여 이르는 말. 結草報恩(결초보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07 '故國'은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①~④ 수식 관계, ⑤ 술목 관계

07-1 수식 관계는 수식어, 피수식어 순으로 풀이하고, 술목 관계는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풀이한다.

08 '霜'은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음을 합쳐 만든 형성자이다. 雨-상형, 林-회의, 上-지사, 好-회의, 頭-형성

08-1 기상 현상과 관련 있는 부수는 '雨(비 우)'이다.

08-2 서리-霜, 이슬-露, 눈-雪, 구름-雲, 비-雨

09 霜-雨, 思-心, 故-女, 光-儿

10 '霜降'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서리가 내리다.'이다.

11 '牀'은 이 시에서 침상을 의미한다.

12 牀(평상 상)

13 '看月'에서 '看'은 서술어로 '보다', '月'은 목적어로 '달'을'로 풀이한다. '看月'은 술목 관계의 단어이다. ①~④ 수식 관계, ⑤ 술목 관계

14 '看'은 손을 뜻하는 '手'와 눈을 뜻하는 '目'이 합쳐져 눈에 손을 얹고 바라보는 데서 '보다'라는 뜻이 생겼다.

15 한시의 사상 전개는 '기(起)-승(承)-전(轉)-결(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16 위 한시에서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두 구(句), 즉 대우를 이루는 구는 ㉠, ㉡이다.

16-1 擧頭 望 山月



17 '科擧'는 옛날에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을 말하며, '擧頭'는 술목 관계이다.

18 이 시의 운자는 '光', '霜', '鄉'이다.

오연시의 운자는 주로 2, 4구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1구 마지막에 놓이기도 한다.

19 이 시는 오연 절구이다.

20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21 疑是: ~인지 의심하다.

22 고개[頭] 숙여[低] 고향을[故鄉] 생각하네[思].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31쪽

- 01 看 01-1 看
- 02 走馬看山 02-1 走馬看山
- 03 고개 들어 산에 뜬 달 바라보고 /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 04 문득 고개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던 시인은 고향에서 보던 달을 떠올리고, 멀리 떠나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되돌아보기 Page 01~04 → 124~127쪽(교과서 106~111쪽)

- 01, 01-1 '看(볼 간)'은 눈 위에 손을 얹고 바라보는 데서 '보다'라는 뜻이 되었다.
- 02, 02-1 '走馬看山'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이다.
- 03 보기의 문장은 대우법이 쓰인 문장이다. 이 시에서 대우법이 쓰인 구는 3구, 4구이다.
- 04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문득 본 달을 통해 고향에서 보던 달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는다.

15 눈물이 강물을 만드네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135쪽

- 01 정지상과 김부식은 문학적으로 경쟁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달랐다. 심지어 김부식은 정지상을 묘칭의 난에 관련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정지상이 문학적으로도 뛰어났고 정치적으로도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여겨 그 원한이 죽어서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했다.
- 02 김부식은 '버드나무 가지가 일천 가닥 푸르고, 복사꽃이 일만 점이 붉구나.'라며 '千', '萬'이라는 숫자를 썼다. 이 두 숫자는 '아주 많다.'라는 의미지만 정말 천이나 만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지상의 시에서는 '가지마다', '(꽃)점점'이라는 시어를 써서 온 가지와 온 꽃이 푸르고 붉음을 더 잘 표현했다.

생활속의 어휘

- ① 豐盛(풍성) ② 多量(다량) ③ 百年佳約(백년가약)
- ④ 多幸(다행) ⑤ 消盡(소진)

- 01 「대동강」의 지은이 정지상은 고려 중기 인종(仁宗) 때의 문신이자 시인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김부식도 그의 시적 재능을 탐내고 시기할 정도였다.
- 02 버들빛이 푸르고, 복사꽃이 붉게 피어 있는 모습에 대한 표현 방법의 차이를 생각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라형문제

136~138쪽

- |        |         |        |      |         |
|--------|---------|--------|------|---------|
| 01 ⑤   | 01-1 ②  | 02 ②   | 03 ② | 04 ②    |
| 05 ③   | 06 ④, ⑤ | 07 ②   | 08 ③ | 09 ②    |
| 09-1 ⑤ | 10 ④    | 11 ①   | 12 ② | 13 ⑤    |
| 14 ⑤   | 15 ④    | 15-1 ⑤ | 16 ① | 17 ②, ④ |
| 18 ③   | 19 ②    | 19-1 ④ | 20 ① | 21 ①    |
| 22 ④   |         |        |      |         |

★ 되돌아보기 Page 01~22 → 132~133쪽(교과서 112~117쪽)

- 01 比(견줄 비), 此(이 차)  
 ⚠ '比(견줄 비)'와 '此(이 차)'는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1-1 悲(슬플 비), 比(견줄 비)
- 02 '冊(冊)'은 원래 대나무편을 끈으로 엮어 놓은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 03 議(의논할 의)
- 04 '皿(그릇 명)'은 '盡', '盛', '益'에서처럼 부수로 쓰이면

 위치에 놓인다.





# VI 요모주모, 선인들의 삶을 만나 볼래요

## 16 금을 버린 까닭은

시험에 잘 나오는 **인성 함양 문제** 147쪽

01 '忠(충) 자와 함께 웅과 잉어, 새우, 조개를 그린 문자도이다. 잉어는 등용문에 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우나 조개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서 굳은 지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 생활속의 어휘

- 1 分布(분포)    2 扶養(부양)    3 捨得(습득)
- 4 意氣揚揚(의기양양)    5 充分(충분)

01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을 자획(字畵)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을 말하므로 글자 속에 나타난 그림을 잘 살펴본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타형 문제** 148~150쪽

- |      |        |      |        |      |
|------|--------|------|--------|------|
| 01 ⑤ | 01-1 ① | 02 ④ | 02-1 ⑤ | 03 ③ |
| 04 ⑤ | 05 ⑤   | 06 ③ | 07 ④   | 08 ① |
| 09 ③ | 10 ①   | 11 ① | 12 ②   | 13 ① |
| 14 ② | 15 ①   | 16 ③ | 17 ①   | 18 ⑤ |
| 19 ③ | 20 ①   |      |        |      |

★ 되돌아보기 Page 01~20 → 144~147쪽(교과서 122~127쪽)

- 01 萌(싹 맹)
- 01-1 養(기를 양), 揚(드날릴 양)
- 02 愛(사랑 애), 昨(어제 작), 質(바탕 질), 悌(공경할 제)
- 02-1 持(가질 지)
- 04 養-15획, 揚-12획, 扶-7획, 昨-9획, 邊-19획, 禮-18획, 推-11획, 進-12획, 篤-16획, 諸-16획
- 05 平野(평야): 평평한 들, 平等(평등): 골고루 같음, 平行(평행): 직선이 만나지 않고 가지런히 나아감.
- 07 '意氣揚揚(의기양양)'은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을 말한다.

08~09 ㉠ 投手(투수), ㉡ 問題(문제), ㉢ 扶養(부양), ㉣ 分布(분포), ㉤ 推進(추진)

- 10 '捨得(습득)'은 '주워서 얻음.'의 뜻이다.
- 12 ㉠의 '之'는 대명사 '그것'으로 쓰였다.
- 16 諸(모두 제/어조사 저). 여기서서는 어조사로 쓰였다.
- 18 '兄弟投金(형제투금)'은 '형제가 금을 물에 던졌다.'는 말로, 돈보다 소중한 형제간의 깊은 우애를 뜻한다.
- 20 문자도 '悌(제)'는 산앵두나무와 할미새를 함께 그려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 문제** 151쪽

01 問 01-1 分

- 02 한자: 孝 / 잉어: 어머니를 위해 한겨울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드렸다는 효자의 이야기를 상징함. / 부채: 날씨가 더운 날 부모님께서 누우실 베개를 미리 부채질하여 가지런하게 하였다는 효자의 이야기를 상징함.
- 03 ㉠ 그것, ㉡ ~하는(~한), ㉢ ~하는(~한), ㉣ 그것
- 04 풀이: 동생이 갑자기 황금을 물에 던졌다. / 문장의 구조: 주술목보 구조
- 05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형제간의 우애이다. 사람의 삶을 더욱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도리이다 등

★ 되돌아보기 Page 01~05 → 144~147쪽(교과서 122~127쪽)

- 01 '問(물을 문)'은 뜻을 나타내는 '말하다(口)'와 음을 나타내는 '문(門)'이 결합하여 '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01-1 '分(나눌 분)'은 물건을 칼로 나눈 데서 '나누다'라는 뜻이 생겼다.
- 02 문자도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그림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
- 03 '之'는 동사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조사로 쓰일 때는 주로 '수식어+之+피수식어', '주어+之+서술어', '목적어+之+서술어'의 구조로 쓰여 문장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04 인용문은 제주도 출신의 여성 김만덕의 선행에 대한 내용이다. 자신의 재산으로 육지에서 쌀을 사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준 만덕의 행동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사회적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 준다.

## 18 재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163쪽

01 장애인에 대해 단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끔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사회에서는 그들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통합 학급의 확대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생활속의 어휘

- ① 增修(증수)    ② 단지(단지)    ③ 無敵(무적)  
④ 秀才(수재)    ⑤ 天動說(천동설)

01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편견의 불식과 함께 여러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므로 이를 기르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 문제**

164~166쪽

- |      |        |        |        |        |
|------|--------|--------|--------|--------|
| 01 ① | 01-1 ④ | 01-2 ⑤ | 02 ③   | 02-1 ③ |
| 03 ③ | 03-1 ① | 04 ⑤   | 04-1 ② | 05 ⑤   |
| 06 ④ | 06-1 ③ | 07 ②   | 08 ④   | 08-1 ④ |
| 09 ① | 09-1 ④ | 10 ③   | 10-1 ② | 11 ⑤   |
| 12 ② | 13 ④   | 14 ②   | 15 ②   | 16 ①   |
| 17 ① | 18 ③   |        |        |        |

★ 되돌아보기 Page 01~18 → 160~161쪽(교과서 134~137쪽)

01 用-용, 若-약, 通-통, 各-각

01-1 伏-복

01-2 信-신, 臣-신, 新-신, 身-신, 但-단

02 不便-불편

02-1 變更-변경, 便乘-편승, 法則-법칙, 降伏-항복

03 無念(무념), 無敵(무적), 角者無齒(각자무치), 無爲徒食(무위도식)

03-1 秀才(수재), 英才(영재), 才談(재담)

04 齒-齒

04-1 念-心, 油-水, 佛-人, 增-土

05 修: 10획

06 ‘油(유)’, ‘佛(불)’, ‘但(단)’, ‘增(증)’은 모두 형성자로서, 음과 뜻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06-1 ‘增(증)’은 ‘土(뜻 부분)’와 ‘曾(음 부분)’이 결합한 글자로, 형성자이다.

07 乘(승) - 오르다, 仰(양) - 우러르다, 執(집) - 집다, 祭(제) - 제사

08 ‘信仰’은 ‘믿어 우러름.’의 뜻이다.

09 信仰-신앙(믿어 우러러 봄), 雨天-우천(비가 음), 無爲徒食-무위도식(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함), 角者無齒-각자무치(뿔 있는 놈은 이가 없음. 무엇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음을 이르는 말), 無念-무념(생각이 없음.)

09-1 ‘降伏(항복)’은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리어 굴복한다.’는 의미이다.

10 秀才, 才談

11 無一能之人: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

12 ‘若(만약 약)’은 문장 앞에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13 ‘十百人’은 열 명, 백 명의 사람으로 풀이한다.

14 各用其長: 각기 그 장기를 써서

15 便爲通才: 곧 재능을 통용하게 하다.

16 則 - 곧 즉

17 세상은 사람(人)을 버릴 일이 없고, 사람은 재능(才)을 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18 첫 문장인 ‘天下無無一能之人(천하에 하나의 재주도 없는 사람은 없다.)’이 가장 주제를 함축한 문장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67쪽

- 01 無                      01-1 才
- 02 (1) 齒, 상형, (2) 人, 회의, (3) 人, 형성
- 03 풀이 순서: 天 - 下 - 一 - 能 - 無 - 之 - 人 - 無 /  
풀이: 천하에는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다.
- 04 독음: 세무기인, 인무기재의 / 해석: 세상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람은 재주를 버리지 않는다.
- 05 세상에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 아직 네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너에게도 분명 너의 장기가 있을 거야.

★ 되돌아보기 Page 01~05 → 160~161쪽(교과서 134~137쪽)

- 01 ‘無’는 촘촘한 무녀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글자의 발음만 빌려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 01-1 ‘才’는 싹이 나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싹이 자라듯 능력도 클 수 있다는 데서 ‘재주’라는 뜻이 생겼다.
- 02 (1) 齒 - 치아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2) 伏 - 人(뜻 부분) + 犬(뜻 부분) → 사람 앞의 개, ‘엎드리다’는 새로운 의미의 회의자, (3) 佛 - 人(뜻 부분) + 弗(음 부분) → 형성자
- 03 ‘天下無無一能之人’에서 밑줄 친 ‘無’는 뒷 구절 전체를 받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해석한다.
- 04 ‘世無棄人, 人無棄才矣’에서 밑줄 친 두 개의 문장이 대구를 이루며, 해석 순서도 동일하다. ‘矣’는 문장의 종결사이다.
- 05 ‘세상에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통합형문제**

168~169쪽

- |        |      |      |      |      |
|--------|------|------|------|------|
| 01 ⑤   | 02 ② | 03 ⑤ | 04 ① | 05 ④ |
| 06 ⑤   | 07 ⑤ | 08 ④ | 09 ③ | 10 ⑤ |
| 10-1 ③ | 11 ② | 12 ② | 13 ① | 14 ② |
| 15 ①   | 16 ④ |      |      |      |

- 01 妹(매) - 손아랫누이, 買(매) - 사다, 賣(매) - 팔다, 每(매) - 매양, 萌(맹) - 싹

- 02 開閉(개폐): 열고 닫다, 慈愛(자애): 慈(자) - 사랑, 愛(애) - 사랑, 賣買(매매) - 팔고 사다, 問答(문답) - 묻고 답하다, 貧富(빈부) - 가난함과 부유함.
- 03 收取(수취): 거두어들여서 가짐, 受取(수취): 받아서 가짐.
- 04 集權(집권) - 권력을 모으다, 詩集(시집) - 시를 모으다, 雲集(운집) - 구름처럼 모이다.
- 05 ㉠의 ‘之’는 대명사로 ‘그것’을 의미한다.
- 06 ‘諸(모두 제)’가 어조사로 쓰일 때는 ‘저’로 읽는다.
- 08 ㉡는 ‘강에 던져 그것을 잇는 것만 못하다.’로 풀이되며, 강에 던져 그것을 잇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 10 棄(기) 버리다
- 10-1 集 - 모으다
- 11 ㉠, ㉡의 ‘之’는 모두 그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였다.
- 12 不若~ = 不如~: ~만 못하다
- 13 男若女: 남자와 여자
- 14 江 - 水
- 15 ‘浮黃者’는 ‘부황에 걸린 사람’이다.
- 16 ㉠: 이것은 곧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다.  
㉡: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였다  
㉢: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였다.  
㉣: 이처럼 하면 세상에는 버려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05 興(흥할 흥)

☞ '興(흥할 흥)'은 '興(줄 여)'와 모양이 비슷하므로 주의한다.

06 復(다시 부, 돌아올·되찾을 복). 往復(왕복), 復活(부활), 回復(회복), 復禮(복례), 光復(광복)

07 產(낳을 산), 產室(산실): 병원 등에서 아이를 낳는 데 쓰는 방. 또는 일정한 일을 꾸미거나 이루어 내는 곳, 또는 바탕

09 ㉠에 들어갈 내용은 '食鼓(식고)'이며, 식고가 있었던 곳은 '成均館(성균관)'이다.

10 '明倫堂(명륜당)'은 성균관의 문묘 북쪽에 설치된 유생들의 강학 장소이다. '명륜(明倫)'이란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 「등문공편(騰文公篇)」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1 배우고(學而) 때에 맞게(時) 그것을(之) 익히면(習)

12 '之'는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풀이하며, 여기에서는 '學', 즉 '배운 것'을 가리킨다.

13 '所不欲'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풀이한다.

14 己(몸, 자기 기). (㉠)의 괄호 안에는 '人(인)', 즉 '다른 사람'과 대를 이루는 의미의 한자 '己'가, (㉡)에서는 '克己(극기)', 즉 자신을 이겨 낸다는 의미에서 '己'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15 '勿(물)'은 '~하지 마라(금지)'의 뜻을 나타낸다.

17 '仁(인)'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18 유가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가 주장한 '仁(인)'의 내용이다. '法治'는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法家)의 사상이다.

19 (가)에서 '說'은 기쁘다는 뜻으로 풀이하며, 이때는 '열'로 읽는다.

☞ '說'은 '말할 설', '달랠·설득할 세'로 읽을 때도 있다.

20 『論語(논어)』는 유가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문답을 적은 책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79쪽

01 禮 02 ㉠ 유세, ㉡ 왕복 03 실천

04 己所不欲 勿施於人 /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05 개인의 욕망과 감정만을 따른다

★ 되돌아보기 Page 01~05 → 172~173쪽(교과서 144~147쪽)

01 그림을 통해 '禮(예도 례)'는 제단 위에 풍성하게 담은 제기를 올려놓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을 알 수 있다.

02 '說'은 '말할 설', '기쁠 열', '달랠·설득할 세' 등 여러 가지 음과 뜻으로 사용된다.

☞ '說'의 여러 가지 음과 뜻에 주의한다.

03 '翺'는 '익힐 습'으로, '익히다', '익숙해지다'는 뜻이다. 윗부분의 '羽(우)'는 깃털 또는 날개를 의미하며, 아랫부분의 '白(백)'은 '日(일)'자와 통한다. 새가 날기 위해 날마다 깃을 움직이며 날듯이 날마다 배운 것을 현실에 응용하여 내 것으로 체화하는 실천의 과정이 '翺(습)'이다.

05 '克己復禮(극기복례)'는 '인(仁)'을 몸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克己(극기)'는 자신의 무절제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며, '復禮(복례)'는 언행이 예에 맞는 상태로 복귀함을 말한다. 즉 이런 상태가 바로 정상적이고 원래적인 모습이며,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비정상적이고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 20 사람이 가야 할 길 - 맹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인성 함양 문제**

183쪽

01 측은지심(惻隱之心)

02 시비지심(是非之心)

**생활속의 어휘**

- ① 喜怒哀樂(희로애락) ② 連結(연결) ③ 不遇(불우)  
④ 寄宿舍(기숙사) ⑤ 哀歡(애환)

- 01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고 보살피는 일은 인(仁)의 단서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 0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진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 일을 하는 지(智)의 단서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볼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리형 문제**

184~186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⑤	14 ⑤	15 ②
16 ②	17 ④	18 ⑤	19 ③	20 ⑤

★ 되돌아보기 Page 01~20 → 180~183쪽(교과서 150~155쪽)

- 01 曲 - 굽을 곡
- 02 救 - 건질, 구원할 구
- 03 '솨(사)'는 본래 '집'이라는 뜻이나, '捨(사)'와 통용하여 '버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04 한자의 제자 원리 중 형성자에 관한 것이다. 즉, 한쪽 부분은 뜻을, 다른 한쪽 부분은 음을 나타낸다. '調(고를 조)'는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말하다)'과 '음(음을)'을 나타내는 동시에 뜻을 나타내는 '周(주→조)'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 05 方(모, 방향 방), 放(놓을 방), 宅(집택), 擇(가릴, 고를택)

06 哀歡(슬플 애, 기쁠 환), 相逢(서로 상, 만날 봉), 混亂(섞일 혼, 어지러울 란), 理由(이치 이, 말미암을 유)

07 進路(진로): 앞으로 나아갈 길, 回路(회로): 전기가 어떤 점을 떠나 도체를 돌아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길, 通路(통로):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 道路(도로):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길

08 救急(구급):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 냄.

09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 '사단(四端)'이란 맹자(孟子)가 실천 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한다.

10 사단(四端)의 하나.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은 '義(의)'의 단서이다.

11 맹자는 '仁(인)'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다.

12 솨(버릴 사) = 捨(사)

13 '不' 다음에 'ㄷ'이나 'ㄹ'로 시작되는 글자가 있을 때는 '부'로 읽는다.

14 맹자는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방심(放心)을 구제하는 데 있을 뿐이다(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고 했다. '心(심)'은 바로 '良心(양심)'을 말한다. 양심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순진무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쉽게 때가 끼게 마련이고, 때가 끼면 거기에 비취지는 사물은 흐릿하게 보여서 그 사물 본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가물가물해진다. 맹자는 이렇게 된 비정상적인 마음, 빗나가고 사특한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학문의 선결 과제이고 궁극 목표라고 말한다.

**🔍** '학문(學問)'은 배우고 물어서 익힌다'는 뜻이며, '학문(學文)'은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던 『서경』, 『시경』, 『주역』, 『춘추』, 『예禮』, 『악(樂)』 따위의 시서 육예를 배우는 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문은 '學問'이다. '學問(학문)'은 글자 그대로 글을 배우는 것, 곧 글공부로서 '學問(학문)'보다 좁은 개념이다.

15 감탄사.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는 '噫(희)', '嗚(오)', '呼(호)' 등의 감탄사나 '哉(재)', '與(여)', '乎(호)' 등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조사가 쓰인다.

- 16 '사람들이 말미암아야 할 길'을 맹자는 '義(의)'라고 하였다.
- 19 '王道政治(왕도정치)'는 儒家(유가), 특히 孟子(맹자)가 주장하는 이상적 정치로, 강압 정치가 아닌 '인(仁)'과 '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말한다.
- 20 '性善說(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윤리 사상으로,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선한 것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4덕(德)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심이 내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확충함으로써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모두가 선인(善人)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87쪽

- 01 ㉠ 哀, ㉡ 슬프다  
 02 ㉠ 仁, ㉡ 불쌍히 여기는 마음  
 03 王道政治  
 04 (가) 순자 - 성악설, (나) 맹자 - 성선설  
 05 義(의)

★ 되돌아보기 Page 01~05 → 180~183쪽(교과서 150~155쪽)



02 맹자는 사람은 본래 네 가지의 본성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 두 번째가 자신의 옳지 못한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행실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세 번째가 겸손하여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 네 번째가 잘잘못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의 마음가짐이 사단(四端)이며,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이며,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단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두 팔과 다리와 같기 때문에 사단을 실천하지 못함은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했다.

- 03 맹자는 민생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힘과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仁義(인의)'에 기초한 정치, 즉 '王道政治(왕도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04 순자는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한 것이라고 보고, 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나 예의 규범 등 후천적인 수양이 필요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성선설은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선한 것이라고 보는 맹자의 학설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仁義禮智(인의예지)'를 확충하면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05 맹자(孟子)는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인 '仁'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의(義)'를 사람의 본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의'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울 때 정치적 혼란을 잠재워 '왕도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1 역설에 담긴 교훈 - 노자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191쪽

- 01 한비자(韓非子)  
 02 묵자(墨子)  
**생활속의 어휘**  
 ① 易地思之(역지사지) ② 校則(교칙) ③ 誤判(오판)  
 ④ 虛弱(허약) ⑤ 植物(식물)

- 01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로서, '지켜야 할 선, 벗지 말아야 할 신'의 이미지와 문구를 통해 질서와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질서를 강조하는 법가(한비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 02 이 포스터는 지역·인종 차별 반대 포스터이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서 사회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묵가의 주장과 가깝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문제**

192~194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⑤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②	15 ②
16 ①	17 ④	18 ④	19 ④	20 ①

★ 되돌아보기 Page 01~20 → 188~191쪽(교과서 156~161쪽)

- 01 弱 - 약할 약
- 02 多少(다소), 損益(손익)
- 03 易 - 쉬울 이, 바꿀 역
- 04 한자의 제자 원리 중 형성자에 관한 것이다. 한쪽 부분은 뜻을, 다른 한쪽 부분은 음을 나타낸다.
- 05 勝(이길, 나올 승), 柔(부드러울 유), 莫(없을 막)
- 06 協力(합할 협, 힘 력)
- 07 重(무거울 중) ↔ 輕(가벼울 경)
- 08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쉽게 바꾸는 도마뱀을 본뜬 글자로, '바꾸다', '쉽다'를 뜻하는 글자는 '易'이다.
- 09 묵자는 兼愛(겸애), 즉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였다. 모두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한다면 전쟁도 없고 서로 협력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 11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역설(逆說, Paradox)'은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진술을, '誤判(오판)'은 잘못된 판단을, '殺到(쇄도)'는 어떤 곳을 향하여 세차게 달려 들을, '辭讓之心(사양지심)'은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말한다.
- 12 孔子(공자), 韓非子(한비자), 老子(노자)는 儒家(유가), 法家(법가), 道家(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다.
- 13 접속사 '則'은 문장 성분을 서로 이어 주고, 주로 조건을 나타낸다. 少則得, 多則惑(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 14 損(덜 손) ↔ 益(더할 익)

- 16 '之(지)'는 대명사로 쓰일 때 '그것'이라고 해석함에 유의한다. 여기에서는 '物(물)'을 가리킨다.
- 17 ㉠ '或(혹)'은 '어떤 때', ㉡ '而(이)'는 어조사로 '그러나'의 의미로 풀이하며, ㉢ '莫(막)'은 '~만한 것이 없다', ㉣ '之(지)'는 대명사로 '水(수)'를 가리킨다.
- 18 노자(老子)는 의미심장한 역설을 제시했다. 비움의 철학이다. 마음을 비우면 뭔가 오히려 얻어진다는 논리다. 여기서 '비우다'는 것은 욕심을 털어 내는 일이다.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다. '역설'은 시대의 병폐나 아픔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寸鐵殺人(촌철살인)의 효과도 있다.
- 19 交易(교역):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서로 바꿈.
- 20 (나)의 핵심 내용은 柔能制剛(유능제강), 즉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역설이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195쪽

- 01 (나)-(라)-(가)-(다)-(라)-(마)
- 02 백성들을 인위적으로 지배하려 하기
- 03 이해득실만 따질 뿐 도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익을 추구하는데, 군주가 신하에서 충성을 요구하거나 도덕만으로 다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법뿐입니다. 법을 통해 죄의 경중을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지요. 질서가 바로잡혀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 되돌아보기 Page 01~03 → 188~191쪽(교과서 156~161쪽)

- 02 노자(老子)는 불변의 가치를 부정하고 변화에 주목했다. 도덕도 법도 모두 인위적인 것이며, 인간을 외재적으로 강제하는 압력이다. 이를 통해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강하고 견고함이란 불변의 고정된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順應)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혼란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 VIII 으쓱으쓱, 우리 고전을 만나요

## 22 온달에게 시집갈래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203쪽

**01** 혼례 **02** 제례

**03** 전통 혼례 및 제례는 그 격식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집안의 중대사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의를 갖추었다. 이에 반해 현대식 혼례나 제례는 딱딱한 격식이나 허례허식보다는 결혼 주체나 제사 주체가 자신의 주관이나 형편에 따라 의식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이다.

### 생활속의 어휘

- ① 清潔(청결)    ② 溪谷(계곡)    ③ 重且大(중차대)
- ④ 凡夫(범부)    ⑤ 公教育(공교육)

**01**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는 의혼(議婚), 대례(大禮), 후례(後禮)의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의혼은 양가가 중매인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대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하는데,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를 포함한다. 후례는 대례가 끝난 뒤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오는 의식과 신랑 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02**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천지·일월성신을 비롯하여 풍사·우사·사직·산악·강천, 그리고 선왕·선조·선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사를 지내 왔다. 그러나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유학의 세력이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유입된 주자의 『가례(家禮)』는 우리나라에 조상 숭배의 관념을 보편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지금까지도 제사라고 하면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 문제** 204~206쪽

- |             |               |               |             |               |
|-------------|---------------|---------------|-------------|---------------|
| <b>01</b> ② | <b>01-1</b> ④ | <b>01-2</b> ⑤ | <b>02</b> ④ | <b>03</b> ③   |
| <b>04</b> ⑤ | <b>05</b> ②   | <b>06</b> ④   | <b>07</b> ④ | <b>07-1</b> ④ |
| <b>08</b> ③ | <b>09</b> ②   | <b>10</b> ③   | <b>11</b> ④ | <b>12</b> ⑤   |
| <b>13</b> ① | <b>14</b> ②   | <b>15</b> ④   | <b>16</b> ② | <b>17</b> ③   |
| <b>18</b> ② | <b>19</b> ②   | <b>20</b> ④   | <b>21</b> ⑤ | <b>22</b> ⑤   |
| <b>23</b> ① |               |               |             |               |

★ 되돌아보기 Page 01~23 → 200~201쪽(교과서 166~169쪽)

- 01** 河-하, 浴-욕, 涼-량, 洞-동
- 01-2** ‘餘’, ‘如’, ‘汝’, ‘與’는 모두 ‘여’로 읽고, ‘夜’는 ‘야’로 읽는다.
- 02** 溪- 시내
- 03** ‘浴’, ‘洞’, ‘涼’, ‘泉’은 모두 ‘水’가 부수이다.
- 04** 郎- 10획
- 05** 河- 水
- 06** 常(상) 항상, 改(개) 고치다, 匹(필) 짝, 谷(곡) 골
- 07** 深淺- 깊음과 얕음.
- 08** 食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음. 言行: 말과 행동
- 09** 平凡: 뛰어나거나 색다른 것 없이 보통이다. 凡夫: 평범한 사내
- 10** ‘夫’는 지아비로서, ‘母(어미)’와 반대되는 한자는 ‘父(아버지)’이다.
- 11** 「온달전」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 12** 대왕은 공주가 올 때마다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汝必爲溫達之婦).”라고 하였다.
- 13** 대왕이 공주에게 하는 말이므로 ‘汝’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주이다.
- 14** 汝(너 여) → 2인칭 대명사
- 15** 溫達之婦: 온달의 아내

- 16 ‘전언(前言)’이란 대왕이 공주에게 전에 하였던 말로, 공주가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뜻한다.
- 17 汝必爲溫達之婦: 네[汝]는 반드시[必] 온달[溫達]의 [之] 부인[婦]이 될 것이다[爲].
- 18 何故: 무슨 이유
- 19 猶不欲食言: 오히려 식언을 하지 않는다.
- 20 ‘乎(어조사 호)’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이다.
- 21 공주의 대화에서 대왕을 ‘至尊’이라고 지칭하였다.
- 22 匹夫: 보통 사람, 猶: 오히려, 不欲: 하고자 하지 않다.
- 23 ‘匹夫猶不欲食言’을 통해 보통의 사람도 식언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술명문제**

207쪽

- 01 大 01-1 夫
- 02 여필위온달지부
- 03 匹夫: 보통 사람. 食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음. 해석: 보통 사람도 오히려 식언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대왕께서?
- 04 갈수록 공해(公害)가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 오염의 주범인 미세 먼지의 농도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공개(公開)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청결(淸潔)한 생활을 위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미세 먼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차대(重且大)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등
- 05 옛날의 여자는 스스로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고 남자에게 의존하는 삶을 당연하다고 여겼음에 반해, 평강 공주는 아버지의 잘못된 말에 당당히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주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등

★ 되돌아보기 Page 01~05 → 200~201쪽(교과서 166~169쪽)

- 01 팔다리를 크게 벌린 사람의 모습을 본떠 ‘크다’는 뜻을 나타낸 한자는 ‘大(큰 대)’이다.
- 01-1 상투에 동곳을 꽂은 남성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 ‘남편’, ‘사내’를 뜻하는 한자는 ‘夫(남편 부)’이다.

- 03 匹夫: 보통 사람. 食言: 말을 먹는다는 의미로 자신이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음. 況: 하물며. 至尊: 지극히 높다는 의미로 대왕을 뜻함. 乎: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 04 한자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문맥이 이어지도록 짧은 글을 지어 본다.
- 05 ‘삼종지도’의 의미와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본다.

**23**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211쪽

- 01 신라 말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
- 02 비밀은 오랫동안 지켜질 수 없고, 진실은 언제인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교훈

**생활속의 어휘**

- ① 聽衆(청중)    ② 指向(지향)    ③ 風向計(풍향계)
- ④ 死亡(사망)    ⑤ 聖賢(성현)

- 0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신라 말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문왕 때는 흥년이 계속되고, 귀족들의 반란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래서 왕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 즉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이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 02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문왕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졌다는 이야기는 남의 말을 더 잘 들으려는 태도 혹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더 크게 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타형문제**

212~214쪽

01 ④	01-1 ④	01-2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②	06-1 ④	07 ⑤
08 ①	0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⑤	

★ 되돌아보기 Page 01~21 → 208~209쪽(교과서 172~175쪽)

- 01 平(평평할 평), 入(들 입), 處(곳 처), 聲(소리 성)
- 01-1 向(향할 향)
- 01-2 ‘於’는 음이 ‘어’이고, 다른 것은 모두 음이 ‘이’이다.
- 02 遊(놀 유), ‘머물다’는 뜻을 가진 한자는 ‘留(머물 유)’이다.
- 03 說-말할 설, 기쁠 열, 달랠 세, 則-법 칙, 곧 즉, 惡-나쁠 악, 미워할 오
- 04 ‘西遊見聞(서유견문)’은 유길준이 서양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 05 한자의 3요소는 한자는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다. 聲(소리 성), 怨(원망할 원), 畱(알릴 고)
- 06 ‘眞實(진실)’은 ‘참된 사실’을 가리키며, ‘眞(진)’은 ‘참’이라는 뜻이다.
- 06-1 ‘暴露(폭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냄을 뜻한다. 이때 ‘暴(폭)’은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 08 ‘云(이를 운)’은 부수는 ‘二(두 이)’, 총획은 4획이고, ‘이르다’, ‘일컫다’, ‘말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 09 사진은 왕의 즉위식(卽位式) 장면으로, ‘卽位(즉위)’는 ‘임금이 될 사람이 예식을 치른 뒤 임금의 자리에 오름’을 뜻한다.
- 10 怨聲(원성): 원망하는 소리. 聖賢(성현):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을 아울러 이르는 말. 大衆(대중): 수많은 사람의 무리. 遊說(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11 ‘死(죽을 사)’의 반의어는 ‘生(살 생)’이다.

- 12 ‘說(말할 설, 기쁠 열, 달랠 세)’의 여러 가지 음과 뜻에 유의하여야 한다.
- 13 ‘其人(기인)’은 ‘그 사람’으로 풀이하며, 여기서는 ‘두건 만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 14 ‘將(장)’의 여러 가지 뜻에 유의한다. ‘將(장)’은 ‘장수’, ‘장차 ~하러 하다.’로 쓰인다.
- 15 ㉠은 ‘도림사 대나무 숲속 사람 없는 곳에 들어가서’로 풀이하므로, 마지막에 해석하는 글자는 ‘入(들 입)’이 된다.  
한자의 풀이 순서에 주의한다.
- 17 ‘竹聲(죽성)’은 두건 만드는 사람이 왕의 비밀을 폭로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18 그림은 대나무를 향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 19 ‘則(즉)’이 문장에서 ‘~(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임에 유의한다.
- 20 두건 만드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왕의 비밀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나, 결국 참지 못하고 발설하고 말았다.
- 21 이 글은 ‘진실을 결국 밝혀진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215쪽

- 01 ㉠ 창문, ㉡ 向
- 02 ㉠ 若, ㉡ 당나귀 귀와 같다.
- 03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외쳤다(폭로하였다).
- 04 진실
- 05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 되돌아보기 Page 01~05 → 208~211쪽(교과서 172~177쪽)

- 01 ‘向(향할 향)’은 집의 창문을 열면 연기가 사방으로 향한다는 데서 ‘향하다’라는 뜻이 생겼다.
- 02 ‘若(약)’은 ‘如(여)’와 같이 ‘~와 같다.’라고 쓰인다.
- 03 신라 경문왕은 갑자기 귀가 길어진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두건 만드는 사람이 폭로하였다.



- 04 이 글은 '진실을 결국 밝혀진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 05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경문왕을 풍자하여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24 남산 사는 허생이오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탐색 문제** 219쪽

01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꾸어다 먹지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괴로워하는 양반과 돈은 많지만 천한 대접을 받는 평민이 있었는데, 부자인 평민이 양반 행세를 하고자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게 된다.

### 생활속의 어휘

- ① 善防(선방)    ② 續出(속출)    ③ 限界(한계)
- ④ 窓門(창문)    ⑤ 特出(특출), 門外漢(문외한)

01 「양반전」은 조선 후기 양반들의 경제적 무능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생활 태도를 풍자한 박지원의 한문 소설로,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당시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다형 문제** 220~222쪽

- |      |        |        |        |        |
|------|--------|--------|--------|--------|
| 01 ① | 01-1 ⑤ | 02 ④   | 03 ④   | 03-1 ③ |
| 04 ④ | 05 ⑤   | 06 ③   | 07 ④   | 08 ④   |
| 09 ① | 10 ①   | 10-1 ① | 11 ⑤   | 12 ②   |
| 13 ② | 14 ①   | 15 ②   | 15-1 ④ | 16 ③   |
| 17 ④ | 18 ②   |        |        |        |

★ 되돌아보기 Page 01~18 → 216~217쪽(교과서 178~181쪽)

- 01 借(빌릴 차), 惜(아낄 석)  
 '借(빌릴 차)'와 '惜(아낄 석)'의 한자 모양에 주의한다.
- 01-1 巨(클 거), 巨(신하 신)  
 '巨(클 거)', '巨(신하 신)'의 한자 모양에 주의한다.
- 02 證(증거 증), 登(오를 등)

03, 03-1 '阜(阜)'와 '邑(邑)'은 부수로 쓰일 때 모양은 같지만 그 위치가 다른데, '阜(阜)'는 글자의 왼쪽( )에 놓이고, '邑(邑)'은 글자의 오른쪽( )에 놓인다.

04 '直角(직각)'은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90도의 각'을 말한다.

05 '戶(집 호)'는 제부수자이다.

06 '出(날 출)'은 입구에서 발이 나가는 것을 나타낸 데서 '나가다'라는 뜻이 생겼다.

07 巨-클 거, 巨, 5획

08 續出(속출): 잇따라 나옴.

09 正直(정직):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直接稅(직접세):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세금

10 '폼(나 오)'는 1인칭 대명사로서, 허생을 말한다.

10-1 각각의 서술어의 주어는 ㉠ 허생, ㉡ 허생, ㉢ 허생, ㉣ 저자 사람, ㉤ 허생이다.

11 돈을 빌리는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① 7년을 읽었다. ② 7년 동안 글만 읽느라 아는 사람이 없었다. ③ 10년을 기약했다.)

12 본문은 「허생전」의 도입 부분이다.

13 '相識(상식)'은 글자상으로는 '서로 알다.'이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친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14 惜乎(석호): 안타깝구나!

15 ① 목적어, ③ 보어, ④ 보어, ⑤ 목적어

15-1 ①, ②, ③, ⑤는 술목 관계, ④는 수식 관계이다.

16 卞(卞)씨[氏]라고 말하는[道] 자[者]가 있어[有]

17 ①, ③은 '~의', '~같은', '~한'이고, ②, ⑤는 대명사(그것), ④는 '동으로 가고, 서로 가다.'는 뜻으로, '뚜렷한 목적 없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말이다.

18 ‘雲從街(운종가)’는 ‘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리’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서술형문제**

223쪽

- 01 (허생이) 책 읽음에 본래 10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이 되어 서이다.
- 02 出門而去
- 03 7년 동안 집에서 책만 읽었기 때문이다.
- 04 한양 안에서 누가 가장 부유합니까?
- 05 卞氏
- 06 訪問
- 07 門

★ 되돌아보기 Page 01~07 → 216~217쪽(교과서 178~181쪽)

- 01 허생은 10년 책 읽기를 기약했는데, 이제 7년밖에 책을 읽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 02 出門(문을 나서다) + 而(그리고-접속사) + 去(떠나다)
- 03 7년 동안 오로지 집에서 책만 읽었기 때문에 집 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 04 誰(누구 수)
- 05 有道卞氏者, 遂訪其家.: 변 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마침내 그(변 씨) 집을 찾아갔다.
- 06 訪問(방문):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봄.
- 07 窓門(창문):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門外漢(문외한): ①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②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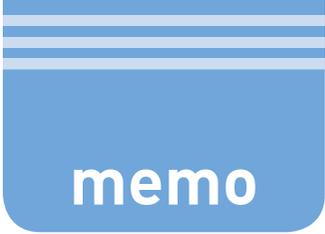
시험에 잘 나오는 **통합형문제**

224~2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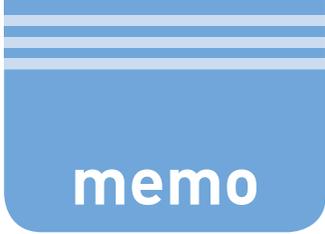
01 ①,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④	12 ③	13 ①	14 ⑤	15 ①

- 01 界(지경 계), 訖(피 계), 溪(시내 계)
- 02 ‘汝’, ‘寺’, ‘竹’ 모두 총획이 6획이다.
- 03 因(인할 인), 認(알 인)
- 04 內(안 내)-死(죽을 사)-聲(소리 성)-浴(목욕할 욕)
- 05 將來(장래):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日就月將(일취월장): ① 다가올 앞날. ②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전망. ③ 앞으로 닥쳐옴.
- 06 公主=汝, 大王=至尊
- 07 大王常語 ‘汝必爲溫達之婦’: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다.’ 하셨다.
- 08 食言(식언):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음.
- 09 況(하물며 황)
- 10 ‘入(입)’의 대상[보어]은 ‘도림사 대나무 숲 아무도 없는 곳’이다.
- 11 두건 만드는 장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 12 안탑깎구나! 내가 책을 읽음에 본래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이구나!
- 13 여기서 ‘之’는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 14 有道卞氏者: 변 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 15 밑줄 친 ‘讀書’는 술목 관계이다. 訪(서술어)+其家(목적어)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